

# K'ARTS



K-ARTS MAGAZINE 13 SPRING 2015

01	Editor's Note	<b>C L A S S</b>	편집실
02	K-ARTS Story	Curriculum : 멀리 가서 뒤돌아볼 때에야 일렁이는 시간 Lead : 원투펀치를 날려라 At All Cost :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듣고 싶은 Star : 별은 내 가슴에 Start : 보여줄게, 같이 놀자	정예은 서은호/최샘이 박이현 선나리 박이현
16	K-ARTS Artists	말 없는 몸의 말 <안무가 신창호> 오래된 노래, 그 여정을 따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마라토너의 운동화끈 <배우 변요한>	최윤지 손승이 김송요
28	Photo Essay	Tiergarten 35, Tiergarten 36	빈우혁
30	Art Theater	그래서 우리의 다음 장면엔 뭐가 오는 겁니까? -극단 그린피그 : 연극 <174517> 감이 적당히 익었으니 감 따라 가자 -영상원 영화과 제17회 졸업영화제, 방송영상과 제11회 졸업상영회 '무엇' 같은 자연 -강성은, 김세은 2인전 <자주 보던 숲>	김윤영 신혜주 이지웅
36	Art & Society	생각보다 많은 'Art Law'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한지원 이동기
40	Global K-ARTS	우리, 같이, 영상원에 다녀요 -영상원 AMA 신입생 인터뷰	선나리
42	K-ARTS News		편집실
44	K-ARTS Digest		편집실

'입학도 어렵지만 졸업은 더 어렵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세간에 소문으로 떠돌던 이 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 학생들의 자조적 고백과 성찰적 진술을 통해 점점 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2015년, 우리는 수업, 스승, 작업, 공간 등 예술학교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불러내기로 한다.

제일 먼저 '수업'이다. 무언가를 배우고자 찾아온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무모한 도전의 밑거름이 되는,

예술학교의 남다르면서 특별하고 그만큼 강한 커리큘럼을 소개한다. 방어할 새 없이 원투 펀치를 날리는 대표적 수업,

수강신청 전쟁을 치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듣고 싶은 인기만점 클래스, 평소 마음 속으로 존경해 온 우리 시대

마에스트로의 강 의까지! 새봄을 맞아 시작 이전의 시작, 새내기들의 첫 수업 오리엔테이션으로 그 문을 열어젖힌다.

2002년 〈No Comment〉를 선보이며 국내 현대무용의 판도를 뒤집은 젊은 안무가는 10여 년이 넘는 동안

그 작품을 심화·발전시키며, 유럽 곳곳의 현대무용의 지형을 흔들었다. 그는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변화하는 공간에서 영감을 얻은 신작 〈Graying〉으로 관객들의 마음마저 빼앗을 생각이다. 순수 국내파 클래식주자로

주목받는 바이올리니스트는 남미에서 불러진 '오래된 노래'들의 익숙한 여정을 섬세하고 관능적 선율로 바꿔 들려준다.

청중의 눈과 귀를 매혹하는 그녀의 연주는 가히 고혹적이지만, 감동을 주기보다 '행복'과 '평안'을 느끼길 바라는

그녀의 내면은 '깊이'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거짓말같이 자연스런 연기로 '미생(未生)'들을 홀린 신에 배우는

연기 초기부터 일관되게 '거짓말하지 않기'를 신조로 삼고 있다. 스크린 속 자기 모습에서 악취를 맡을 때 연기를 멈추고,

평생 연기하며 극복해야 할 것이 '인성'이라는 그는 수도자같다. 그러한 모습과 함께 오직 달리기 위해서, 운동화끈을 동여맨 후

오랜 시간 착실히 체력을 비축해 온 마라토너의 맨발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학교에서 잘익은 감들의 다양한 맛을

골라 즐기면서, 작업의 무게와 일상의 책임을 오간 애니메이션 감독의 '생각보다 맑은' 이야기와 새 친구들과 예술적 영감을

얻고자 저 멀리 아프리카 케냐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온 세 친구의 환한 웃음도 덤으로 얻는다.

'입학도 어렵지만 졸업은 더 어렵다'는 소문에 '자신의 전공은 물론 눈을 넓게 뜨고 가슴을 열면

모든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다 "기존에는 없었던, 다른 곳에서는 불가능한,

전혀 새로운 창작의 세계를 열 수 있길 바란다"는 기대를 덧붙인다. **K\*** 편집실

# C u r r i c u l u m

## L e a d

### A t A l l C o s t

#### S t a r

#### S t a r t





# 미켈란젤로가 서 아볼 때에야 이런 느낌이 시간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대표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추상적인 이상을 중시했던 플라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며 실존적인 철학을 중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뚫듯 펼치고 있다.

〈극작연습1〉의 첫 과제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만져본 것’에 대해서 쓰기였다. 본 것을 묘사하기란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 빨간색이 저 빨간색과 어떻게 다른지, 왜 그것들을 달리 묘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그때 깨달았다. 그걸 모두 묶어 ‘빨간색’이라고 통칭하는 순간 개별성은 사라진다. ‘들은 것’은 ‘본 것’보다 더 어려웠다.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 들어앉아 물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쳐 봤다. 초저녁의 공설 운동장에서 남학생들이 농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농구공이 아스팔트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르는 그 소리를 어떻게 묘사할지 고민하면서, ‘만져본 것’에 대해서 쓸 땐 택배 박스를 수도 없이 어루만졌다. 손톱으로 눌러 보면서, 힘을 주어 우그러뜨리면서, 쥐어 보면서, 양손으로 잡고 찢어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이 오감을 이용해서 묘사하는 것의 어려움이였다. 보고 듣고 만지는 데 신경을 오롯이 집중하면서, 마치 동물의 감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잘 짜인 커리큘럼은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에게 감각을 일깨우는 충격을 준다.

황지우 선생님이 하시는 〈명작읽기〉 수업에서, 학기 초 학생들에게 나가는 과제는 전지에 그리스 신화 계보를 그리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 선대가 저지른 죄로 인한 저주가 후대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코러스 역시 비극의 인물들을 명명할 때 ‘아무개의 아들/딸 아무개’로 명명한다. 이는 그들이 어떤 운명론적 공동체로 묶여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화 속 인물의 가계도를 정리하는 것에는 ‘운명’이란 단어가 이들 모두를 묶어주는 인과관계로 존재함을, 그리고 이들 모두가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개별적인 존재로서 행동하려 한다는 것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담겨 있다.

커리큘럼은 단순한 교과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다. 그리고 하나의 체계는 또 다른 체계를 이룬다. 한 개인의 세계관.

##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하게 하는

내가 1학년일 때 당시 극작과 조교님은 술자리에서 〈박과 사위〉를 들으라며 정말 좋은 수업이라며 열변을 토하셨다. 안 되는 몸으로 박(拍)에 맞춰서 사위를 어거지로 추다 보면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뭔지 한시라도 빨리 깨달으라고. 커리큘럼의 순기능은 자신이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있다. 사실 맞는 것,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이는 안 맞는 것과 못하는 것과 하기 싫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된다. 수많은 연극원 학생들이 〈극장실습〉과 〈연극하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회의하고 추후 진로를 고민하며, 더러는 휴학하기도 한다. 같은 의미로 미술원의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다. 백센 커리큘럼은 아직 확신이 없는 이에게는 강제로 명상의 시간을 제공한다. 매저키즘적인 면모가 다분하지만, 뼈에 새기고 얻은 결론이므로 어떤 동기부여보다 강한 의지도 된다.

## 선생님들

멀티미디어영상과를 졸업한 한 학우는 장윤희 선생님이 하시던 <그래픽스2D>를 인상 깊은 수업으로 꼽았다. 클래스 전원이 각자 영상을 제작하고 토론하는 수업이었는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긴 시간 동안 독립 프로젝트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고, 완성도보단 내용과 의도를 중점적으로 보고 평가해 주셨다. 이 수업을 통해 단순한 테크닉이 아니라 '영상 연출'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보통 영상 연출 초심자들은 화면이 심심해 보이거나 밀도가 없으면 과도한 이펙트나 괜한 빠른 편집, 의미 없는 소품들의 향연 등 뭐라도 쑤셔 넣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그런 의미 없는 오브제를 사용하지 않게 됐다고.

스승의 훌륭한 코멘트는 방향성을 갖게끔 한다. 그리고 방향성을 갖게 되면 방향성에 의한 심미안이 생기게 된다. 단순히 좋고 나쁨을 넘어서 무엇이 '왜' 아름다운지 꿰뚫어보는 능력.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콤파스를 칠판에 대고 설명하는 수학자 유클리드와 친구를 들고 있는 조로아스터.

연극원에 공통 필수 과목이 있던 시절 김현선 선생님의 <한국의 사머니즘과 민속민담> 수업을 기억하는 한 학우는, 수업의 내용도 좋았지만 선생님이 삶으로써 보여주는 부분에서 더 많이 감동했다고 회고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구술사를 채록하던 선생님의 모습에서 학자와 발굴자의 면모를 두루 보았고, 그 삶이 인상 깊어 남았다.

선생님들의 어떤 학문적 태도에서도 학생들은 배운다. 사실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커리큘럼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일지라도 그것은 상당 부분 수업을 다루는 스승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 함께 배우는 사람들

한 연기와 배우는 이렇게 말했다. 연기를 하다 보면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사들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잘 받아쳐 줘야 한다고. 그때부터는 대본의 영역이 아니라 농담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상대방이 내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대사를 치거나 하면 반응하기 어렵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방향으로 대사가 튀어도 잘 소화시키는 친구들이 있다. 그게 얼마나 스스로를 자극시키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일상에서 하는 말의 거의 전부를 농담으로 채운 적도 있다고.

무용이론은 '사람이 춤을 출 때 어떻게 몸을 쓰는지'에 대한 학문이다. 문화별로 어떤 무용들이 어떻게 전승되어 오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과학과 미학, 사회학과 인문학의 방면에서 파고드는 학문. 한 무용이론과 배우는 하나의 공연을 올릴 때 일부러 서로 다른 스타일의 무용수들을 캐스팅하려 한다고 했다. 서로 다른 움직임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만들 때 생기는 쾌감이 있다고. '사람이 어떻게 몸을 쓰는지'를 넘어서서 그것이 어떻게 '함께 만들어지는지'를 학생들은 배운다.

동기나 선배의 영화에 참여했던 경험이 수업보다 더 도움이 되었다는 영화과 학생들도 많았다. 커리큘럼 바깥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다른 사람의 작품에 참여하며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보고 익힌다. 공간의 연출, 다큐멘터리적인 접근, 실험적 시도까지.

우리는 내게 없는 감각과 힘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있다. 어디서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 타율성

한 학우는 미술이론과 수업을 두고 '좋았다 =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는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물론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이라면 집에서 책을 읽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독학 재수 성공한 사람 보고 독하다고들 하지 않는가. 안 시키면 안 한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타율적인 인간인지 재고할 필요도 있다. 일단 수업이 있으니 학교에 가고 숙제가 있으니 작업을 하고 발제문을 써야 하니 책을 읽는다. 자율성뿐만 아니라 타율성에 의해서도 사람은 앞으로 나아간다.

'회곡을 엄청 많이 읽었고, 연극의 역사를 좀 더 알게 되었고, 일 년에 공연을 백 편 이상 보는 걸 실제로 해 봤고, 진상 관객과 싸우다 몇 개월쯤 더 늙게 되었다.' - 예술경영을 전공한 한 학우의 코멘트.

## 꼭 자기 전공에서만 통용되는 것은 아닌

한국예술학과를 졸업한 학우의 이야기다. 고등학교 때까지 서양철학이나 예술철학이나 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 동기 5명과 함께 앉아서 <예술학 개론>을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한국전통예술을 바라보는 시각도 점차 바뀌었다. 고대 악기의 흔적을 찾아 가던 한 수업의 기말고사 시험은 이랬다. 어떤 이상한 물체 사진을 주고, '이게 악기라면 어떻게 연주가 될지 기술하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생각해 보게 하는 힘은 다른 수업에서도 심분 발휘했다. <한국현대소설연구> 수업을 들었을 때 김연수의 소설집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의 발제를 맡았다. 자기가 느끼기에 이 소설들은 '우연'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주인공들은 '내 인생이 왜 이래야 하지?'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그때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주제였다. 왜 자꾸 내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들이 끼어들지? 그런데 그게 우연은 맞나? 혹은 필연은 아닐까? 폴 오스터의 소설 『우연의 음악』을 읽었다. 내가 생각하는 우연의 음악이 될까. 그리고 그때 그 수업에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졸업 후 공연을 만들었다. 서양의 재즈 같은 즉흥음악인 '시나위'를 주제로 한 국악 공연이었다. 공연명은 '우연의 음악'.

<기초도자>를 배웠던 서사창작과 학우의 이야기다. 소설은 없는 걸 짜내며 무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흙덩어리는 처음부터 그 형태가 분명히 있고 손이 움직이는 대로 즉각 그 형태가 갖춰진다. 그 껍이 신선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소설 쓰기와 도자조형의 공통점을 알게 됐다. 대중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쓰면 소설이 망하는 것처럼, 대중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흙덩어리를 만지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나온다는 것. 똑같다는 것.

## 알수록 더 모르게끔 만드는 어떤 것

서사창작과를 졸업한 한 학우는 <플롯구성 워크샵>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플롯이 뭔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제주도서 태어나 마당극을 보고 굿 구경을 하면서 연극에 관심이 생겨 연출과에 원서를 썼던 학우 역시 아직도 연출이 뭔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알긴 점점 아는데 점점 모르겠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이제는 단언도 할 수 없다. 결국은 소크라테스적인 결론으로 흐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내가 유일하게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지.'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꼭 그만큼 침묵하게 되는.

기사를 쓰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았던 수업을 물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어쩌면 대답을 못 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른다. 우리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주인공처럼 수치화되어서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떤 수치가 오르고 또 내려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성장을 확인하는 시간은 한참 후에나 가능하다. 아주 한참 가서 뒤돌아볼 때나 가능하다. 지나오고 나면 그때야 비로소 달려져 있는 것이다. 어쩌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나이를 먹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대학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때의 그 시간들을. **K** 글 정예은



Raffaello, <School of Athens>, 579.5×823.5cm, 1511  
교황이 개인 서재로 사용하였던 '서명의 방' 벽면 중 <아테네 학당>은 철학을 대표하는 프레스코화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현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 진리를 향한 이성적인 탐구를 찬양하고자 했다.

# 원투 펀치 퍼치 리듬과



원투 펀치는 한 손으로 날카롭게 잼을 넣으면서 반대쪽 손으로는 스트레이트를 넣는 권투용어로 야구에서는 팀의 주축이 되는 1선발 투수와 2선발 투수 두 명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한예종 수업의 원투 펀치들은 무엇일까? 각 원을 리드하는 수업을 두 개씩 뽑아보았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혹은 타원생도 많이 듣는 악명 높거나 유명한 원투 펀치들을 만나보자.

## 오케스트라 음악원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산실, 음악원의 대표 과목은 누가 뭐래도 <오케스트라> 수업이 아닐까. 오케스트라 지휘 전 공생과 기악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이 수업은 그야말로 초 대형 커리큘럼! 음악원에는 실내악, 앙상블 등 다양한 형태의 합주수업이 있지만 <오케스트라> 수업은 기악과가 총집결하여 하나의 곡을 연주하기 때문에 더욱 풍부한 소리의 소통을 배울 수 있다. 한 악기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 오케스트라 악보 속에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리를 조율하며 '함(숨)'을 맞추어가는 것이 핵심! 특히 인류 유산 급의 명곡을 한 학기 동안 깊이 있게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휘과 학생들은 자신만의 참신한 해석을 실현하고, 기악전공자들은 섬세한 감성조절과 연주 해석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꿈의 수업인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클래식의 미래가 수업으로만 끝나느냐? 완성된 연주는 학기마다 정기연주회에서 발표된다. 수업의 연장선이자 평가 과정인 정기연주회는 늘 성황이고, 수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명품공연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 서양음악문법 음악원

작곡은 음악의 시작, 특히 서양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 7 음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음악의 시작을 배우는 기초과목이 <서양음악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수업은 총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4과목까지는 경전 급의 악보를 교재로 삼아 실제 악곡의 화성 진행을 분석하고 따라 하며 화성풀이를 배운다. 일반 화성학 수업은 여기에서 끝나겠지만 <서양음악문법> 수업에는 타 음대와 다른 특별함이 있다. 5, 6과목은 화성학을 기본으로 한 작품분석에 보다 심도 깊게 들어간다. 화성풀이가 있어야 작품분석이 가능한 것이 인지상정! 수업의 총 과정을 꾸준히 따라가면 추후 스스로도 작품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키워주는 자랑스러운 수업이다. 단, <서양음악문법>은 음악적 지식과 감각 외에도 고난도 수학적, 과학적 지식이 총동원되는 이과적인 수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에선 보기 드물게 성취감이 확실한 수업이라 많은 학생들이 이 고난의 길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 극장실습 연극원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 부딪히는 기본적인 물음, '연극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심층적인 해석보다 실질적인 답을 주는 수업이 바로 <극장실습>이다. 연극원 1학년 학생들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이 수업을 통해 연극의 시스템을 체험한다. 끊이지 않는 공연 레퍼토리는 한예중 연극원의 자랑이다. 무대 제작과 세팅부터 티켓 배부, 객석 안내, 하우스 정리, 각종 오퍼레이션, 무대 철수 등 극장 내에서 존재하는 갖은 기능들을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책임 시간을 채운다. <극장실습>의 모미는? 첫째, 오직 현장! 공연 현장에는 늘 '변수'가 존재하는 법이다. 각종 돌발 상황, 현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순간 대처 능력을 기르고 거기에서 발휘되는 책임감과 성실성을 익힐 수 있다. 둘째, 현장이 주는 무언의 동지애. 실제로 연극원의 연극 작업은 <극장실습> 동기들의 매칭에서 주로 시작된다. 패스수업으로 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능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각종 공연에서 모시고 가곤 하므로, 오히려 가장 병철한 검증 방식을 갖추고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원의 <오케스트라>

## 박과 사위 연극원

연극원에서 장구 장단이 울리고, 풀치마 자락이 나풀거린다? 한국전통예술의 구성 원리를 통해 전통적 호흡법으로 신체와 정서의 긴장 이완을 훈련하며 한국 정서를 배양하는 특별한 수업이 있다. 그 이름하여 바로 <박과 사위>. 이름도 낯선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장구로 전통장단인 '박'과 한국무용으로 전통물짓인 '사위'를 배운다. 장구 장단을 손이 아닌 입으로 치기가 일쑤이고 탈춤자세를 잡으면 병신춤의 사위가 속출하는 등 웃음 가득한 에피소드는 그 덩이다. 한국인의 삶을 송두리째 올려놓은 것 같은 연극원의 작품들이며, 바로 옆에서 숨 쉬는 듯한 연극원 출신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는 모두 <박과 사위> 수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극원의 <극장실습>

## 창작을 위한 영화보기 영상원

김홍준 교수가 진행하는 이 수업은 '독창적인 (영상물) 창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일련의 영화텍스트를 접하는 강좌'라는 목적의식 아래 진행된다. 비평을 위한 분석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주관적인 감응을 바탕으로 영화와 '접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매 수업 새로운 영화를 보고 끊임없이 사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참여'가 가장 중요하며 수업관리가 철저한 것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다. 허나 밀폐된 공간에서 꽤 많은 인원들과 영화를 보다 보면 저산소증에 시달려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자. 리뷰 쓰기는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그 리뷰의 형태는 제약이 없다. 심지어는 상영 때와 다른 영화의 리뷰를 써간 학생도 있었다. 앞서 밝혔듯 이 수업의 핵심은 영화를 '본다'는 기초적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체험을 통해 감정적인 감응을 확장하는 데 있으므로 말 그대로 '솔직한' 리뷰를 쓰도록 하자.



영상원의 <영상문화글쓰기>

## 영상문화글쓰기 영상원

1학기에 진행되는 <영상문화 글쓰기1>은 한창호 평론가가, 2학기에 진행되는 <영상문화 글쓰기2>는 이안젤라 평론가가 진행하고 있다. 2008년 첫 개설부터 2014년 강



무용원의 <고급실기>

의까지 <영상문화글쓰기1>의 주된 테마는 '멜로드라마'였다. 멜로드라마의 장르적 이해와 주요작품들을 감상하고, 동시에 '비평'을 쓰기 위한 작법을 익혀 멜로영화 비평을 실습해보는 것이 주 수업이었다. 2015년 수업은 멜로드라마라는 주제에 주력하기보다 각 나라별, 각 분야별 영화 이론을 학습하고 실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강의계획서에 명시했듯, 이 수업은 '글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글쓰기를 장려한다. 또한 이 수업은 '비평적' 관점을 기르고 서로 그 생각을 교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토의가 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이 수업에는 준비물이 있다. 그것은 "나의 흑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가열찬 승부욕이다. 그것이 크리틱과 글쓰기의 지난함을 버티게 해줄 것이다.

## 춤과 문화 무용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허영일 교수가 진행하는 무용원 강좌. '춤'이라고 하는 신체적 운동이 어떻게 '문화'라고 하는 인문학 분야와 접속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보는 수업이다. 수업 초기에는 '신화'와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춤을 이해하고, 중반부 이후로는 아시아권(일본, 중국 등)의 사례를 통해 춤과 문화의 접속을 시도한다. 후반기에는 현대의 무용들이 어떤 맥락과 의미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해보고, 우리 무용교육이 어떻게 외연을 넓혀갈 것인지 사유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전 수강생들은 춤이라는 동작이 어떻게 세계 각국의 문화사적 의미와 맞닿는지 살펴봄으로써 춤이 가진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는 감상을 남겼다.



미술원의 <파운데이션>

## 고급실기 무용원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로 나뉜 실기 수업이다. 실기학과 3-4학년이 주 대상으로 수업 난이도가 높다. 이를테면 <고급실기-현대무용 6>에서는 "우연성에 맞기는 창작방식으로 춤에 관한 통념을 뒤흔든<sup>1</sup>" 현대무용가 머스 커닝햄이 주창한 커닝햄 테크닉을 통해 "신체의 반응과 민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고급실기-발레 8>은 "고전 발레의 기본 움직임들을 더욱 완벽하고 우아하며 세련되게 다듬는 훈련에 집중할 것이며, 점차 완벽해지는 움직임들을 토대로 작품을 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서 다듬어야 하는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고급실기-한국무용 8>의 경우엔 "우리 춤의 맥과 춤사위 및 기교를 중심으로 남성 무의 정수를 전수"하여 "미래 정통적 춤을 계승하고자 함에 그 목표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수업은 학교 입학 이후 무용수들이 연마한 테크닉과 기술들을 완성형에 더 가깝게 다듬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하며 동시에 무용이 어떻게 미래지향적 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수업이다.

## 창작드로잉 미술원

미술원의 대표적인 드로잉 수업 중 하나로 두 학기 모두 이순주 작가가 이끌고 있다. 보편적인 선입견으로 '미술'은 그 어떤 예술 분야 중에서도 기술적인 수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순주 작가는 '테크닉'이 아닌 '태도'를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싶어 한다. 실제 이순주 작가는 "작가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자가 아닌 인간과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자다"라고 선언하며, 그 자신부터 드로잉에서 설치, 벽화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미

술에 접근하는 일련의 작품들을 선보여 왔다. 포맷은 변화할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한 가지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고민한 흔적들을 그려내는 것이었다. <창작드로잉>은 '드로잉'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을 사유해 봄으로써 작가 그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파운데이션 미술원

파운데이션은 원래 미술원 전체 학과가 함께 진행하는 1학년 공통필수 과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과가 빠져 있는 상태다. <관찰과 평면조형(2d)>, <입체와 공간(3d)>, <미술과 인문학>, <미술과 과학>, <미술사> 수업이 공통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타원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충격과 모험'은 <입체와 공간> 수업의 한 과정이다. 말 그대로 충격과 모험을 제공하는 것이 수업의 주된 목표인데, 수업을 이수한 학생의 전언에 따르면 '강인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비단 '충격과 모험' 말고도 매주 진행되는 크리틱은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의 반복이라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지만, "어떠한 문제든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법과 생각의 힘을 배웠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실기실습 전통예술원

전통예술원이 아직도 도제식 골방수업을 하고 있다고 믿는 이 있는가? 몇 초 노노! 전통예술원의 자랑인 <실기실습>은 매주 모든 학생이 모여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잔치 한마당이요, 경축연이다.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이 수업은 1, 2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1학기는 수년 경력 전공자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자리다. 매주 선발된 몇몇 학생들이 전공을 발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함으로써 심미안을 높인다. 발표자들은 그 자리에서 참관한 교수에게 기량, 테크닉, 무대매너, 의상, 감상법까지 다양한 코멘트의 총평을 듣는데, 이것이야말로 <실기수업 1>의 백미. <실기실습 2>는 기악과, 연희과, 무용과, 한국예술학과의 아이디어가 모여 전통예술을 소재로 새로운 무대를 만드는 꿈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실기실습 1>을 통해 마음이 맞는 학생들이 모여 기획한 공연은 <실기실습 2> 수업을 통해 발표되고, 결과물은 교수들의 의견을 통해 다듬어져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다.

## 기초실기수업 커리큘럼 전통예술원

전통예술원은 악(樂), 가(歌), 무(舞)의 종합공연예술을 지향하면서 통합교과적 수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직접 실현하는 수업시스템이 바로 <기초실기수업 커리큘럼>이다. 이 커리큘럼에는 장단실기를 비롯하여 가야금, 거문고, 단소, 대금, 민요, 살풀이, 승무<sup>2</sup> 등 제 전공 외의 다양한 타 과목의 기초실기가 선택과목으로 준비되어 있다. 한국예술학과의 필수과목으로도 지정된 <장단실기>에서는 직접 장단을 연주하며 장단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 예술의 호흡과 감성, 구성 원리, 배경, 사상, 세계관 등을 체득한다. 가야금을 뜯던 손이 대금의 지공을 누르기도 하고, 자반을 돌던 다리가 살풀이의 사위를 밟기도 한다. 이처럼 타 전공실기를 경험함으로써 공통된 정서와 함께 실연(實演)될 때의 기술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합연(合演)의 호흡을 위한 이해도가 향상된다. **K\***

글 서은호, 최샘이



전통원의 <실기실습>

1 김채현, 「신체행위로 환원되고 폭발한 현대무용」, 『예술의 전당』 1997년 11월호

2 세부 과목은 변경될 수 있다.

#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듣고 싶고 시풍은

기피하고 싶은 수업도 있지만, 기를 퍼주는 수업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수업도 있지만, 피를 볼지라도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 A 학점을 폭격하는 수업? 에이, 그런 게 아니다. 비록 학점이 짜더라도 강의만은 달콤한 수업, 학기 중엔 괴로워도 방학이 오면 그리워지는 수업.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듣고 싶은 한예종 인기 수업들을 소개한다. 그 인기의 비결을 파헤쳐 보자.

## 기초연기 연기과

계절학기로 열리는 개방수업 <기초연기>는 연극원 학생보다 타원 학생들에게, 한예종 학생보다 타학교 학생들에게 유명한 수업이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전국 방방곡곡의 학교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한다. 기본적으로 비전공자가 대상인 수업이기 때문에 연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오히려 강사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다그친다. 사회의 억누름을 벗고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연기를 잘할 수 있기 때문. 그래서 연기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진 학생부터 단순히 머리를 비워보고 싶은 학생,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싶어 하는 학생과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누구도 <기초연기>의 문을 두드린다.

강의는 크게 2부로 구성된다. 먼저 몸털기, 구르기, 마사지 같은 사전 프로그램으로 긴장을 푼다. 연기는 그다음이다. 처음엔 자신을 화나게 했던 사람을 떠올린다거나 가장 외로웠던 순간을 말하게 하는 등 자기 경험에서부터 연기를 이끌어낸다. 이어 전쟁으로 어머니가 죽은 상황을 설정한다거나 불륜을 이용해 마음을 하게 하는 등 연출이 개입된 연기를 수행하게 된다. 심여 회 되는 수업 동안 배우로 성장하진 못할지라도, 수강생들은 서로 친해지며 지친 심신을 달랜다. 아니, 한 선생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미 배우로 태어난 걸 지도 모른다. <기초연기>를 통해 수강생은 자기감정과 경험을 들여다보며 자신과도 더욱 친해지게 된다.

## 요가 예술교양학부

학생들은 넓은 캔버스 앞, 하얀 원고지 위, 뜨거운 조명 아래에서 보내기 일쑤다. 허리가 빠근하고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서 대부분 수업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요가> 수업에 몰려든다. 정원은 스무 명에서 서른 명 남짓이지만, 2009년 1학기에 처음 개설된 이후 여태 한 번도 빈 자리는 없었다.

수업에는 호흡법부터 인도의 전통요가에 기초를 둔 아산나, 워파산나 명상, 필라테스 등 운동과 복근 운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문화 센터 등 외부에서 열리는 요가 수업과 커리큘럼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학교에서 따로 돈 들이지 않고, 학점도 챙겨가며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한 강사는 수업 시작 전에 항상 양초를 켜둔다. 미국에서 직접 양봉하며 히피처럼 사는 예술가 친구가 만들어 선물한 양초라고. 수업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만의 치유방법을 공유한다. <요가> 수업은 앞만 보고 달리기 쉬운 학생들에게 내 몸과 내면을 돌보고 돌아보게 할 소중한 시간이다.



연기과의 <기초연기>



예술교양학부의 <요가>

## 유리공예 조형예술과

우리 학교는 캠퍼스 내에서 유리 관련 수업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다. 1998년, 석관동 구석의 송추동 공방에 국내 대학 최초로 유리 가마가 생기며 <유리공예> 수업이 개설되었다. 이 수업은 정규학과와 비정규학과 모두 개설되는데 특히 겨울 계절학기에 인기가 가장 많다. 유리공방이 찜질방처럼 따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가마 온도는 1100도를 상회하기에 자칫 발을 헛디뎠다간 유리와 함께 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업에선 작업실 안전 수칙부터 함께 배운다.

<유리공예> 수업은 크게 블로잉(blowing)과 캐스팅(casting)으로 나뉜다. 블로잉은 말 그대로 불어서 유리의 모양을 형성하는 기법으로, 기원전 50년경 예루살렘의 장인들이 우연히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술과 소재는 다양해졌지만 도구와 기법은 이천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변한 바가 없다. 캐스팅은 그야말로 장인의 영역이다. 다른 소재와 달리 완성 후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세심한 차이가 작품의 형태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기초유리 블로잉 수업을 먼저 들은 후 전공에 진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블로잉 수업도 네 번에 걸쳐 반복 수강이 가능하게 해줬다. 그만큼 숙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업이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자 원하는 형태의 잔, 그릇, 병 등을 만드는 게 <유리공예>의 목표다. 보통 작은 잔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크기를 키워 그릇이나 화병을 만든다. 시중에서 파는 유리병은 천 원짜리 지폐 몇 장으로 살 수 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의 입과 손으로 유리병을 만드는 경험은 얼마를 주어도 살 수 없다. 유리는 쉽게 깨지지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상을 구현하려는 예술가의 의지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 인체드로잉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과 1, 2학년 과정에 개설된 이 수업의 학생들은 누드모델을 앞에 두고 앉는다. 다만 1학년 수업에는 이젤이, 2학년 수업에는 조소 활흙이 놓여 있다. 수업을 둘러싼 전설이 많은데 심지어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다. 축적된 몇 가지 정보와 일화를 소개한다.

보통 누드 크로키 수업을 진행할 때는 누드모델이 선곡한 배경 음악을 들어준다. 최신가요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음악은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준다. 한번은 CDP에 문제가 생겨서 음악이 끊겼던 적이 있었다. 점차 모델의 숨소리가 커지더니 묘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한다. 결국, 수업은 잠시 중단. 남자 모델의 경우 수업 전에 성욕 억제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약이 잘 듣지 않아 돌발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다른 일화도 있다. 2011년에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댄싱 9>이란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자, 듣고 있던 모델이 자기도 좋아한다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모델이 자세를 바꾸면서도 유독 자신을 바라보는 눈만은 고정되어 있어 수업 내내 곤란했다고.

모델의 전공에 따라 특성도 나뉜다. 무용 전공자들은 유연해서 그리기 좋으면서 동작이 어려운 포즈를 잘 잡아주고, 미술 전공자들은 각도나 액세서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가장 재미있는 모델은 연기 전공자. 무릎 꿇는 자세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심통한 표정을 취한다거나, 허리를 펴는 자세에서도 마치 광복이라도 된 마냥 해방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웃긴 일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은 두 팔이 절단되어 의수를 끼고 동양화를 그리는 석창우 화백 다큐멘터리를 틀어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모델로 들어온 사람은 바로 그 주인공. 당시 수업을 담당한 선생님은 '석가'로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석정현. 둘의 작품 시연이 시작되었고, 수업은 마치 교향곡처럼 흘러갔다.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포즈를 취했다. 그림을 그리는 속도에 맞춰 포즈도 즉각 바뀌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이마에도, 그려지는 사람의 이마에도 땀이 맺혔다. 긴장감이 방 안을 메워 수강생들은 아무 말 없이 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 인형과 대안공간 무대미술과

연극은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 전체를 조율하는 연출가, 극본을 쓰는 극작가, 텍스트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배우가 있다. 종종 우리는 이 목록에 무대를 제작하는 무대미술가를 빼먹기도 한다. 연극원 무대미술과는 시노그래퍼(Scenographer), 즉 무대미술가를 양성하는 과다.

<인형과 대안공간>은 원래 인형극 무대를 제작하는 수업이었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었다. 수업에서 인형은 더 이상 인간의 조종을 받는 객체가 아니라 공간과 관계 맺는 주체로 여겨진다. 또한, 무대 역시 프로니시움에 국한되지 않고 무대 밖 현실까지 확장된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상적인 공간을 다른 가능성을 지닌 공간으로 새로이 바꾼다.

이들테면 연극원 강의동 3층 복도에 있었던 노란 테이프를 붙여 만든 땅따먹기가 <인형과 대안공간>의 결과물이다. 테이프 하나로 복도는 유년기 놀이터로 바뀐다. 노란 선 옆에는 조약돌을 담은 봉투를 걸어뒀다. 팍팍한 강의 일정에 지친 학생들을 언제든 활력이 넘치는 소녀와 소년으로 돌려놓는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자주 산책하는 석관동 캠퍼스 정문 쪽 숲에 해먹을 걸어 부서져 가는 환경업 안전가옥 사진을 둔 작품, 강의동에 묶인 하얀 실타래를 따라 잔디 옥상으로 유도하는 설치작품도 있다. 어떤 학생은 샤워실에 거울을 설치해 자신의 얼굴을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K\*

글 박이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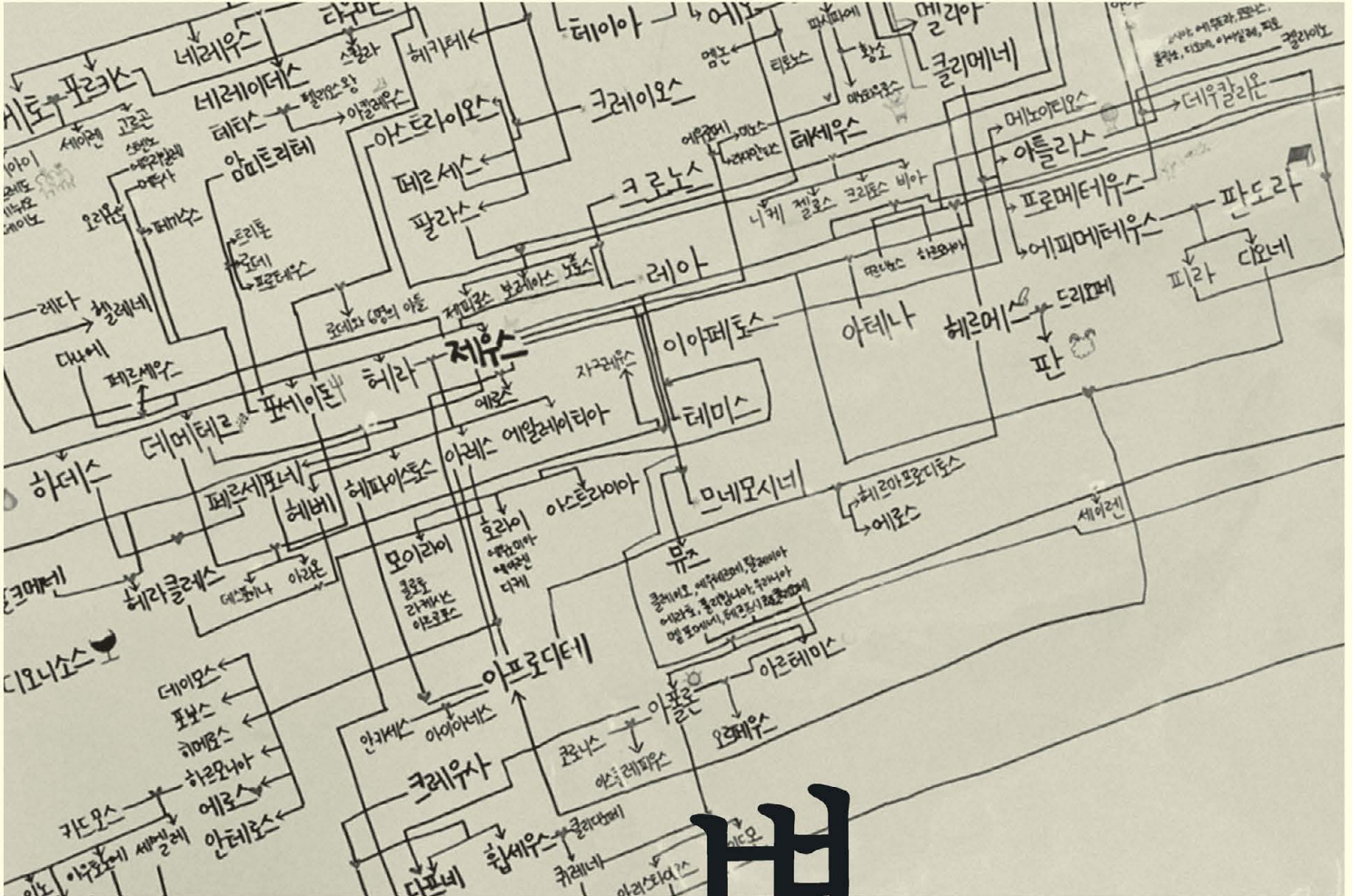
조형예술과의 <유리공예>



애니메이션과의 <인체드로잉>



무대미술과의 <인형과 대안공간>



연극원 극작과 황지우 교수의 <명작읽기>는 그리스 신화의 계보를 전지에 그린 후 수업과제로 제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분리된 신화의 마디를 씨줄과 날줄로 엮기 위한 필수 작업이다.

# 버려진 내일이 가스미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개교 이래 각 예술 분야의 '마에스트로'나 '고수'라고 불릴 만한 인물들이 하나둘 모여 20여년을 이끌어왔다. 다른 예술학교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 꼭지는 그렇게 이 학교에서 각자의 탐을 쌓아올림으로써 제자들을 길러내온 스타 교수들의 수업을 다룬다.

젊은 시절, 시집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로 문단에 등장한 연극원 극작과 황지우 교수는 <명작읽기>로 유명하다. 문학을 쓰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결국 정전(canon)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수업이다.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를 찬찬히 읽는 것으로 첫발을 떼는 수업은 서사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플롯의 요소들을 스스로 재구성해 보는 작업을 거친다. 이 수업의 목적은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씩 슬쩍 읽고 지나쳐 버리는 신화의 마디를 분리해,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쌓아올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사 창작의 능력을 배양하려는 것이다.

황지우 교수는 "작가는 직업적 이야기꾼"이라며 "고전에 흐르는 전류를 느껴야 자기 이야기에다 그것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지우 교수의 입을 빌리자면, "이야기들의 원형은 고대 신화에서 많이 보이는데, 우리가 수업에서 신화의 이야기소로 연습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화 안에서 디테일을 끌어내 생생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수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원 영화과 김홍준 교수는 서울대학교 영화 동아리 '알라성'에서 활동한 인물로, 임권택 감독의 연출부·조연출을 거쳐 『장미빛 인생』과 『정글 스토리』를 연출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예전에 트위터에서 한 학생이 만들어 둔 '김홍준 봇 (@kimhongjun\_bot)'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김홍준 교수 특유의 '애정 담긴 독설'이 모여져 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잘나갈 때 즐겨야 해요. 전 그때 너무 겸손했더니 진짜 못난 줄 알아요." "여기가 무슨 영화 만드는 공장이야!!" "영화라서 그런 게 어딴어! 영화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반드시 리뷰 12개를 다 내야만 한다고. 하나라도 안 내면 내가 지옥 끝까지 따라 가겠다고. 지옥 다음은 F라고."

영상원에서 <창작을 위한 영화 보기>, <마스터 클래스>, <성격창조 워크샵>, <이야기 구성> 등을 진행하는 김홍준 교수는 영화감독 출신의 스승으로서 또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영상원 학생 팬들만 한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다. <마스터 클래스>는 10여 개의 한국 영화를 선정해 매주 하나의 영화를 감상하고, 해당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비평가를 직접 초청해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을 갖는 수업이다. 영화 상영 시설이 갖춰진 영상원 2층 대시사실에서 진행된다. 김홍준 교수는 '저널'이라고 불리는 리뷰 형식의 과제를 매우 중시하는데, 매주 감상을 기한에 맞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는 특정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영화를 보고 토론한 내용을 그때그때 스스로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영화 「시」, 「밀양」, 「박하사탕」 등의 감독으로 잘 알려진 영상원 영화과 이창동 교수는 <서사와 플롯> 수업을 진행했다. 이창동 교수는 본래 소설가로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인물인데, 그래서인지 수업 중에도 문학에서 서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런 면에서 그는 황지우 교수와 닮았다. 그 또한 이 수업에서 "작가는 이야기꾼"이라고 강조하며, "죽으나 사나 감정(을 독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전부)"이라고 말한다. 그는 시나리오를 쓰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 캐릭터의 말투나 성격을 갖고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창동 교수에게 영화는 행동을 보여주는 예술이다. 그 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인물이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씨줄과 날줄이 바로 서사와 플롯의 구조다. 그는 「델마와 루이스」를 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선 안 되는 걸 하는 것. 그것이 서사의 시작이다. 이 영화는 시작에 끝이 있다. 좋은 시작은 끝을 품고 있다." 아마 서사를 창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금언과도 같은 말이 아닐까.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금 한예종 총장을 맡고 있는 미술원 건축과 김봉렬 교수가 진행했던 것으로 유명한 <아시아건축>은 건축과의 대표 수업 가운데 하나다. 아시아 건축을 문화권별로 나눠 그 특성을 이해하고, 특히 한국 건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중국 건축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동시에 중동, 이슬람, 인도, 동남아, 일본 건축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건축과 세계 건축 간의 영향과 그 위상을 탐구한다.

김봉렬 총장은 『서원 건축』,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등을 펴낸 저술가이기도 하다.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저술과 한옥 연구 및 건축을 병행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총장에 취임하면서는 건축학자답게 '중창'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오래된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뜻이다. 그는 "우리 예술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세계일보』 인터뷰 중에서는) 신념 아래 남은 임기 동안 한예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건축과 학생들 사이에서 '좋은 수업'으로 입소문이 퍼졌던 수업이지만, 아쉽게도 2013년 김봉렬 교수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당분간은 그의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됐다.

한국 나이로 여덟 살이던 1959년 전국농악대회 대통령상을 받고 후일 사물놀이를 창시한 전통예술원 연희과 김덕수 교수는 <연희극 제작실습>과 <장단실기> 등을 가르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김덕수 교수는 공연 무대뿐만 아니라 수업을 진행할 때도 특유의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압도한다는 평을 받는다. 그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수업에서 뒤처지는 사람 한 명 없이 모두를 끌고 가는 힘을 지닌 선생님"이라고 증언한다. 열정이 넘친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쉬는 시간엔 편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고, 평소 학생들이 직접 전화를 거는 데에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인물이다. "정말 큰 선생님이지만 우리에겐 형이나 선배, 큰아버지처럼 느껴진다."

그는 구음(口音) 또한 중시한다. '구음'이란 '멍기덕 콩더러러'처럼, 악기에서 울려 나오는 음을 입으로 흉내 내는 소리를 말한다. 가락 또한 절대 함부로 뺄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김덕수 교수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라는 말을 자주 쓴다. 다른 사람한테 적당히 물어가지 말라는 뜻이다. **K\*** 글 선 나리



김봉렬 총장



황지우 교수



김덕수 교수



이창동 교수



김홍준 교수

# 보여줄게, 같이 놀자

“야호!” 입학허가서를 받은 신입생이라면 방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 거다. 오티(OT)도 소리를 지르는 자리다. 다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른다는 점. “야호, 야호!”하는 환호에 새내기로 보낼 새로운 1년에 대한 기대가 가득 담겨있다.

오티는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의 약자로,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해 여는 행사다. 영어에서 오리엔테이션은 ‘예비교육’이란 뜻도 있고 ‘방향’이란 뜻도 있다. 말하자면 오티는 학교생활의 방향을 잡는, 길잡이가 될 자리다. 새내기 배움터(새터) 혹은 신입생환영회(신환회)라고도 불리는 오티는 3월에 열릴 입학식에 앞서 2월 중에 진행된다. 시작 이전의 시작이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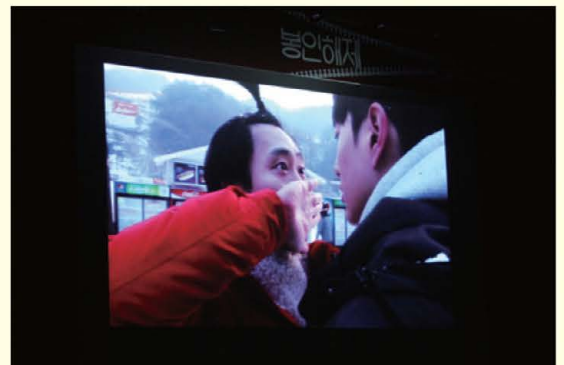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올해 오티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렸다. 대표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이 그동안 갖고 닦아온 전공 실력을 자랑하는 ‘보여줄게 K-Arts’와 다른 원의 커리큘럼을 몸으로 겪어보는 ‘체험 K-Arts’로 크게 두 가지가 있으며, 한예종의 전통주 ‘굴주’를 함께 마시는 자리로 맺음했다.

첫날은 캠퍼스 투어로 시작했다. 작년까지 없던 프로그램이다. 각 원 신입생들은 옹기종기 모여 학교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일정이 예년보다 늦게 시작된 탓에 지각한 학생들이 헬레벌떡 버스로 뛰어오는 풍경을 올해는 볼 수 없었다. 하나의 풍경이 사라졌고, 또 하나의 풍경이 사라질 것이다. 바로 3월 초에 “강의실이 어디 있죠?”하고 물으러 다니는 신입생의 모습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무용원·음악원이 서초동 캠퍼스에, 나머지 원들이 석관동 캠퍼스로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예술원·미술원이 의릉을 사이에 두고 영상원·연극원·학교 본부와 떨어져 있는 탓에 강의실을 찾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날 투어를 통해 신입생들은 자신이 속한 자리를 확실히 익혔다.

버스는 오후 늦게가 되어서야 출발했다. 입학대상자들과 재학생, 교직원을 태운 스무여 대의 버스가 일렬로 선 장관을 연출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은 우리 학교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다. 두 시간을 달려 이목고 원주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숙소에 짐을 풀고 강당에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보여줄게 K-Arts〉는 버스나 강의실이 아니라 무대와 극장에서 선배들과 새내기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전통원은 현악 4중주로 솜씨를 뽐냈으며, 영상원은 졸업생 및 재학생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다. 미술원은 기성 영상에, 1학년 커리큘럼인 파운데이션 수업이 힘들 거라고 새내기들을 끌어 먹는 자막을 붙인 영상을 상영했다. 올해는 로미오와 줄리엣에게 신입생의 대사를, 보니 앤 클라이드에게 선배들의 대사를 붙여 말싸움하는 양식으로 “성적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할 거야”라는 로미오에게 누구는 돤바<sup>1</sup>를 입고 싶어서 입느냐고 클라이드가 답한다거나, “사방한 대학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은 학교(학사경고)라니”하는 대사가 재치있게 편집되었다. 연극원 학생들은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주요 소절들을 노래했다.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건 무용원 선배들이다. 동작이 유연하고, 유려했고, 우아했다.

오티 이름날은 〈체험 K-Arts〉로 꾸러졌다. 입학 후 전공수업에 치여 다른 원의 문을 두드릴 일이 많지 않은 한예종 학생에게 귀중한 꼭지다. 먼저 연극원은 〈밀회〉, 〈가을동화〉, 〈미생〉 등 유명 드라마와 영화의 한 장면을 가져오되, 전혀 다른 맥락을 부여해 연기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밀회〉는 장미물<sup>2</sup>이 되었으며, 〈미생〉은 회사가 아니라 과제에 분투하는 학생들이 피터지게 공부하는 학교로 무대가 바뀌었



- 1 2015 오티는 ‘봉인해제’ \_ 총학생회
- 2 뛰다보면 속이 좋아질 거야 \_ 과음한 새내기들을 위한 체험 전통원
- 3 ‘You raise me up’ \_ 합창 연습 중인 체험 음악원
- 4 대사 한 줄과 너만 있으면 어떤 연극도 만들 수 있어 \_ 체험 연극원
- 5 원작보다 무조건 재미있게! \_ 체험 영상원

다. 열정 넘치는 연기로 주목받은 멀티미디어영상과 주현우 씨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시험에 응시해 오티에 참가했다. 오는 7월에 전역할 예정인 그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그러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영상원 프로그램도 연극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연극원이 공연을 한 것과 달리 영상원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미리 촬영한 영상을 상영했다. 남자 신입생 연기와 심효민 학우는 드라마 <피노키오>의 여배우 박신혜(최인하역)로 여장하여, 손바닥 키스 장면을 열연했다. 양갈진 목소리에 많은 학생들의 웃음이 터졌다.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원빈(한태석 역)이 순수한 이미지의 송혜교(윤은서 역)에게 “얼마면 돼?”라고 묻는 명장면도, 드라마 <별에



6 우리는 오늘 출쟁이 \_ 체험 무용원  
7 스포트라이트 받으며 레드카펫 한번 밟아보자 \_ 체험 미술원  
8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티의 전통, 그 이름도 유명한 '굴주'

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천송이 역)이 소찬휘의 '티어스'를 부르는 장면 모두 코믹하게 다시 탄생했다. 드라마 뿐 아니라 광고와 애니메이션 오프닝도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다. 2014년을 뜨겁게 달궜던 의리맨 김보성의 식혜 광고는 소주 광고로 바뀌었다. <카드캡터 체리> 오프닝은 새내기에게 의해 실사판으로 다시 촬영되었다. 무용원 실기와 한국무용전공 최준우 학우는 세밀한 표정 연기와 몸짓을 통해 체리를 연기해 객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다음으로 무용원 순서. 새내기는 하루 종일 대중가요 안무를 익혀 군무를 쳤다. 선곡은 걸그룹 EXID의 '위 아래'와 GD&태양의 'GOOD BOY', 그리고 뜨거운 노래, 현아 '빨개요'였다. 클럽에서 춤으로 이름을 날렸을 법한 신입생도 있었고, 서른 남짓한 나이에 출이란 걸 처음 취보는 듯한 신입생도 모두 무대 위에서 신났다.

<체험 K-Arts> 미술원 꼭지에선 흰 옷과 종이를 활용해 난해한 옷을 만들었다. 무용원 실기와 정재현 씨는 흡사 사무라이를 연상케 했다. 영상원 영화과 김광균 씨는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나풀거리는 느낌의 패션을 뽐내며 원래 옥황상제 컨셉이었으나 팀원들이 하나씩 손을 보더니 결국 거지가 되어버렸다고 한탄을 했다. 런웨이에겐 백주 페트로 어깨뿔을 만든 새내기도, 발토시를 만들어 걸그룹 SES 스타일을 소화한 새내기도 있었다.

그리고 대망의 <신입생 가요제>가 열렸다. 김현정의 '멍'을 불러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한 전통원 음악과 이주연 씨, 무대 중앙에서 비통한 자세로 소프라노 조수미의 '나가거든'을 부른 영상원 방영과 원준혁 씨 등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다.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1등은 <겨울왕국> OST '사랑은 열린 문'을 부른 연극원 연기와 백건희, 장보람 듀오에게 돌아갔다. 백건희 씨의 따뜻한 저음과 장보람 씨의 안정된 음 등 노래 솜씨가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둘은 연기와답게 설레는 감정을 훌륭하게 연기하며 사랑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아 관객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인기상은 무용원 창작과 이용민 씨가 뒀다. 트로트가수 박현빈의 '곤드레 만드레'를 부르며 돌고 뛰며 흥들고 무대에 었드리고 발바닥을 흔드는 화려한 춤사위로 무대를 땀으로 적신 결과였다. 그는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소소한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예종의 전통주라 할 '굴주'를 마시는 순서. 오티를 주관한 18대 총학생회장 배상희(전통원 한국예술학과) 씨는 “나는 이 굴주를 마시지 못해 아직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생으로 남았다”며, “여러분은 원샷해 무탈히 졸업하길 바란다”며 건배사를 전했다.

행사는 여기서 마쳤지만 새내기와 재학생의 대화는 밤새 이어지며, 미팅과 캠퍼스 커플, 맛집과 술집부터 수업 정보와 졸업 후 진로까지 다채로운 이야기가 오갔다. 이렇게 대학생활은, 시작했다. 이들에게 앞으로도 “야호! 야호!”하고 소리지를 일이 많길 바란다. K\*

글 박이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오리엔테이션 현장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1 일본어 'トッパ'에서 온 '뚝파[뚝빠]'의 순화어인 '반코트', '토편'로 쓰는 것이 맞지만, '뚝바'는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현 중 하나가 되었다. 포털사이트에 '뚝바'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가장 먼저 '한예종 뚝바'가 뜬다. (참고-국립국어원)
- 2 '장미꽃'의 어원은 애욕적인 연애관에 대해 사회비평을 담아 그린 중세 프랑스의 '교혼적인 시(Romandela Rose)'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여성 동성애 만화'로 인식되어, 게이잡지 '장미족'의 편집장 이토 후미마나부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출처-만화애니메이션사전)

매거진 K-ARTS 14호(Summer 2015)부터 <K-ARTS CLASS>가 신설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생생한 수업 현장과 배움의 열기를 동영상과 함께 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른 3월의 밤,  
 찬 바람이 부는 예술의  
 전당을 바삐 가로지르는  
 발길들이 있었다. 하나뿐인  
 건물 탓에 조금 외로워  
 보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교사에는 무용원과  
 음악원이 자리하고  
 있다. 바깥에선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악기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공간을 채운다. 그리고  
 가벼운 몸들이 맨발로  
 사뿐히 복도를 오간다.  
 저녁 일곱 시, 리허설이  
 한창인 연습실을 두드렸다.  
 우리를 맞이한 안무가는,  
 무용원 실기과의  
 신창호 교수였다.





# 말 없이 몸의 말

## No Comment

공연 준비와 개강 준비로 한창 바쁘다는 그의 수석어는 우선 ‘안무가’이다. 대표작 〈No Comment〉는 2002년에 만들어져 14년째인 지금까지 공연되는 작품이다. 상당한 국내 공연 횟수뿐만 아니라 해외 투어 공연만 해도 10여 개국이 넘고,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발레단에 레퍼토리로 수출되었으며, 지난 1월 영국 라반센터에서의 공연은 ‘훌륭하고 폭발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No Comment〉는 오랜 시간을 거쳐 신창호의 목직한 레퍼토리가 된 것이다. 2002년 처음, 졸업 작품으로 선보이게 된 이 안무의 시작은 이라크전 당시 TV 뉴스에서 스쳐 지나간 하나의 영상에서 비롯되었다.

“폭격을 맞은 건물 더미 위에서 한 남자가 자기 몸과 얼굴을 치면서 우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하나가 지나가는데 많은 내용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가 자학하는 모습에서 모티브를 가져왔어요. 이라크 전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열기와 소리가 강렬하게 전달되면서 세계 공통의 언어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용수의 맘이 관객석에 튀는 작품이거든요.”

인스브루크에서의 공연은 그의 네트워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2007년 한국의 페스티벌에서 만난 친구가 이후 인스브루크 발레단의 단장이 되어 기획공연까지 연결된 것이다.

“문화가 달랐어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몸을 쳐서 자극하는 장면을 보면 ‘한’의 정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스브루크 발레단 단원들은 사운드와 비트를 생각하면서 살사 혹은 댄스 스포츠처럼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의 주제를 심오하게만 받아들

이지 않고 축제처럼 즐겁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무용수의 몫이니까, 나름대로 재밌게 작업했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 수많은 무용수와 공연 횟수를 거쳐 간 〈No Comment〉의 변화된 주제 또한 흥미롭다.

“처음에는 이라크 전쟁, 울부짖는 남성 등 심오한 주제와 에너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역동적이고 리듬감 있는 동작들로 인해 무용수들이 즐기면서 춤출 수 있고, 관객들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작품으로 많이 변화했어요.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진 것이죠.”

이 작품은 신창호 교수도 꾸준히 무용수로 출연한다. 무용수가 즐거워야 그로 인해 안무가가 기쁘고 덩달아 관객에게 재미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3월, 또 한 번의 공연을 앞둔 〈No Comment〉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 안무를 한다는 것

신창호 교수가 무용수였던 시절, 그는 프랑스·독일·동유럽 등지에서 여러 안무자를 만나 춤을 추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후에 안무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작품 준비 기간이 하나같이 단기간에 그치고 마는 데에 부족함을 느꼈고, 깊은 해석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목말랐다. 그리고 2005년, 스위스 상트갈렌 시립 무용단의 필립 에글리를 만나게 된다.

“최종적으로 상트갈렌에서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어요. 필립 에글리가 어떻게 자기 안무 패턴을 바꿔가고 발전시키는지 알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그가 컨셉 하나를 어떤 방식으로 성장시키는지

지켜보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타인의 작품에 출연하기보다 무용수들에게서 무언가를 끌어내어 스스로 창작해 봐야겠다고 결론을 지었지요.”

그의 안무는 무용수들이 안무에 공감하고, 자극을 받으며 작품으로 귀결된다.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통은 안무가가 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인 구상을 본 다음 부분 부분을 완성해 나가요. 다같이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맨투맨 레슨 하듯이 무용수 한 명 한 명과 작업을 하거든요. 그 때 무용수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역동적인 움직임, 에너지들을 잡아내요. 이 장면은 이렇게 남겨두자, 이야기하면서요. 맨 마지막에 장면을 풀어내니까 작품이 완성되어 있더라고요.”

창작하는 방식을 들으며 안무의 종착점, 관객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졌다. 그는 우선 안무의 방법론을 충분히 보여주고, 작품을 본 관객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궁금해 하고 어떤 은유를 발견할지 생각한다. 한편 뉴스에서 거론되는 특정한 사회 이슈 등 관객의 관심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소재를 위시한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가.’

## LDP 무용단

한국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LDP(Laboratory Dance Project)는 일반적인 무용단이 아니다. 물론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 현대 무용 전공 출신의 무용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안무자와 무용수의 역할이 선명하게 나뉘는 여느 무용단과는 달리, LDP에 속한 무용수라면 누구나 안무자가 될 수 있다. 안무자 선정을 위한 제안을 한 뒤 단원들의 거수가결을 통해 자격을 얻으면 된다. 궁극적으로 이곳의 무용수는 전부 안무가를 꿈꾸고 있다. 지난 2014년까지 6년간 그가 LDP를 이끌어 왔다. 2015년부터는 김동규 대표에게 일임했고 지금은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전까지 그가 대표를 맡으면서 LDP는 변화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만을 요구하고 재공연에 대한 투자는 없는 무용계의 시스템에 의문을 던져왔다. 그리고 레퍼토리 공연의 정착을 위한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마케팅이었다.

“친분이 있었던 해외 디렉터들에게 공연이 있을 때마다 DVD를 하나씩 보냈어요. 페스티벌 디렉터들이 ‘이 작품은 흥미로운데 이 정도 조건에 올 수 있겠니?’ 물어보면 저희는 한국에서 지원을 신청하고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어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네트워크가 빠르게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해외 공연을 다양하게 갈 수 있었죠.”

그는 이번 4월 4일과 5일에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할 신작 <Graying>을 준비하고 있다. ‘노화’라는 뜻의 이 제목은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의미한다. 그는 어느 날 낙산공원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바라본 경험을 술회했다. 오래되어가는 장소인 낙산공원에 서서 젊어져 가는 도시를 바라보자면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공간 자체에서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노화와 그로 인한 소멸 이후에 나타나는 ‘순환’을 주제로 하여 무한대, 링반데룽(Ringwanderung 등산에서 짙은 안개나 폭풍우를 만났을 때나 밤중에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지점을 맴도는 일)의 모티브를 해석하여 무대화할 예정이다.

그는 현대무용을 무한대의 공간으로 표현한다. 언젠가 강남역에 갔을 때, 강남역이라는 장소는 똑같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진화하며 변종함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현대무용 또한 계속 전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은유한다. 그 안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공통의 언어를 찾고 더불어 해석의 여지를 다양하게 열어놓는 안무가의 시선이 존재한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열려있는 공간이자 외부에서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언급되는 무한대의 공간.

그 안에서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신창호 교수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K\*

글 최윤지 | 사진 김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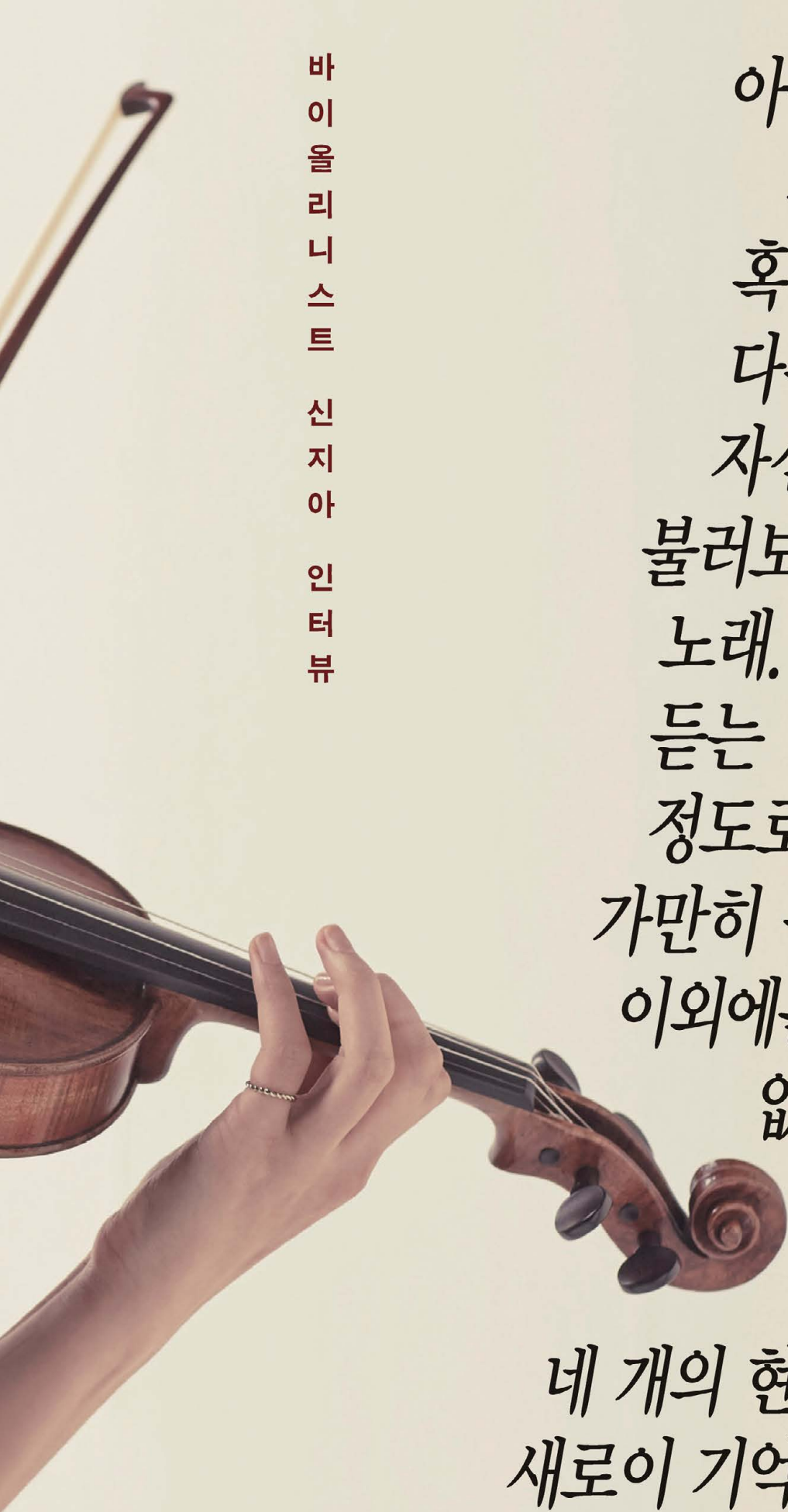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안무가 신창호 교수 인터뷰 및 LDP 무용단의 <Graying> 공연 연습 장면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창호 교수가 안무한 <Graying>이 4월 4일과 5일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이번 공연은 LDP 무용단 창단 15주년 기념 공연으로 류진욱, 안남근, 이선태, 윤나라 등이 출연한다. LDP 무용단 제공

세기를 이끄어가는  
예술가들의 뒤시김 ...  
2015. 신창호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이가  
최초로 자신의 슬픔  
혹은 기쁨을 노래하고,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포개어  
불러보지 않았다면 없었을  
노래. 그 오래된 노래를  
듣는 일은 때론 아득할  
정도로 근사해서 그저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기 마련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는

네 개의 현이 그 선율을  
새로이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명하도록  
낮선 땅 위를 의연하게  
걸을 줄 알았다.

# 오래된 노래, 그 여정을 따라

올해 1월 말 기타 듀오 이성우·파르타쉬 나이니와 함께 '칸토 안티고'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앨범에서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민요 16곡을 연주하셨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앨범에 수록된 곡들과 피아졸라의 곡으로 구성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연 리허설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공연 소개글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사랑과 자유'가 등장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사랑... 평생 고민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건 사람에게서는 평생 노력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에게 있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앨범 수록곡들을 연주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리랑 같은 한 서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슬픈 멜로디를 들으면 단지 머리로 슬픈 게 아니고 몸이 저절로 반응한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앨범을 들으면서 남미의 정서를 엿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남미 음악이라 하면 대개 굉장히 정열적이고 화려하고 붉은 이미지들을 생각하시는데 이번 음반을 통해서는 약간 힘을 뺐, 조금 다른 남미의 감성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을 은유적으로 일종의 여정이라 한다면, 기타 듀오 이성우·올리버 파르타쉬 나이니와의 여행은 어떠셨나요?

악기가 다를 뿐이지 음악을 표현하고 연주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타리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나눠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곡들은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때 들으면 혼자 여행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들을 때마다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이 곡들의 매력이에요.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난 후에 홀로 2주 동안 프랑스 파리에 머물다 오셨죠. 여행은 어떠셨어요?

너무 행복하죠. 말 그대로, 파리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고 많은 여자 분들이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죠. 정말 낭만적이네요. 저는 그 나라에 가면 모두가 가는 여행지를 꼭 둘러봐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일단 그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부터 해서 그곳의 냄새나 느낌, 분위기들을 모두 다 느껴보려고 해요. 제 음악에 혼을 불어넣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는 박물관도 많이 구경했어요.

이전에 클래식 곡을 연주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시도를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클래식을 하던 아티스트가 약간은 힘을 빼서 연주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니까요. 그런데 기타를 연주하는 선생님 두 분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 오셨고, 저도 그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낯설지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함으로써 음악가로서의 커리어에 조금 더 색깔을 입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이었어요. 제 본명이 신현수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현수를 클래식 아티스트 주자로 생각하고 계시고 많이 반대하기도 하셨어요.



〈Canto Antigo〉, 신지아·이성우·올리버 파르타쉬 나이니, Universal, 2015

**지아라는 예명에 뜻이 있나요? 자신을 안다는 뜻인가요?**

지혜 지(智), 아름다울 아(娥). 어떻게 보면 흔한 이름인데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네 살 때 바이올린을 처음 접하고 이후에 전주의 한 음악학원에 다니셨지요. 그 어린 나이에 앞으로 이 악기를 계속 연주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그것이 바이올린이라는 걸 미처 알기도 전부터 악기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 밥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제 생활의 일부가 되어서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바이올린에 대해 의심할 겨를도 없이 콩쿠르라는 것을 준비했고, 그러다 1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보니 다음 목표가 좀 더 큰 콩쿠르에서 1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1위를 해보니까 2위로 떨어지긴 또 싫더라고요. 저는 뭔가 하나를 했을 때 기왕이면 후회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삶을 돌아봐도 후회가 없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 시절의 일과는 어땠나요?**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전주에서 살았거든요. 아침에 여섯 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기 전 한 시간씩 무조건 스케일 연습을 했어요. 학교 다녀오면 4시, 5시부터 바로 연습하고, 또 간단히 밥을 먹고, 12시에 자요. 그 다음 날 또 일어나고, 저는 24시간이 늘 부족했어요. 연습을 하기에도 부족했고, 연습을 하고 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친구를 많이는 못 만나 봤어요. 지금은 정말 친한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스승인 김남윤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중학생 정도 때부터 제가 해외 캠프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외국 선생님들께 레슨을 받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태리에서 그냥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활기차게. 그런데 너는 걸음걸이가 남자 같으면서 선생님께서 정말 많이 혼내셨어요. 저는 선생님께 음악으로 혼나지는 않았는데, 걸음걸이로 혼나니까 너무 서러워서 그날 한 다섯 시간 동안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선생님의 큰 사랑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저의 모든 행동이 음악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소의 마음가짐과 옷차림부터 모든 것이 다 울발라야 한다는 것을 제게 음악보다 더 크게 심어 주셨어요.

**유럽과 일본 등 각지에서 활발히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해외활동은 어떤 것이었나요?**

매번 다 기억에 남지만 가장 최근의 활동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연관된 공연관계자의 초청을 받아서 핀란드로 갔어요. 그곳에서 백야와 그 고장의 풍경을 느끼고 바이올린을 켤 때는 정말 색달랐어요. 의도치 않아도 시벨리우스 곡의 느낌이 저절로 나온다고 할까요. 시벨리우스가 핀란드 출신이거든요.

**앞으로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저의 음악을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그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감동을 줘야겠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작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럴 때 음악이라는 걸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K'**

글 손송이 | 사진 크레디아



신지아와 기타 듀오인 이성우, 올리버 파르타쉬 나이나가 앨범 녹음을 위해 작업하고 있는 모습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인터뷰 및 <Canto Antigo> 공연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다.  
 마라톤화에도 끈이  
 있을까? 끈이 있으면,  
 끈이 풀렸을 때 묶기  
 위해 멈추어야 할 테고,  
 묶지 않았다가는 걸려서  
 넘어질 테고, 그러면  
 기록을 단축할 수도  
 메달을 딸 수도 없을 텐데.  
 그러나 뜻밖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본  
 마라톤화에는 끈이 묶여  
 있었다. 의아해하던 중 배우  
 변요한을 만났고, 그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목표는  
 금메달이 아니라 완주고,  
 끈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곧 왔던 길을 돌아보는  
 기회라고.

# 감독의 아카데미

2월 상상마당 단편영화극장이 '변요한展'이라는 테마로 꾸러졌어요. 본인의 필모그래피로만 섹션을 구성한 특별전이 열리다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단편영화는 영화제 때 외엔 극장에서 보기 힘든데, 이런 상영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죠. 제 발자취가 다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저도 극장에서 이 작품들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전회차 매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봤어요(웃음). 제가 각각의 작품에 임했던 모습이 영화마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서 현장의 사람들에게 의지하던 때부터 조금씩 카메라를 알아가고, 정서를 잡아가는 과정들. 그게 재밌었어요.

3월에 개봉하는 <소셜포비아>나 이번 '변요한展'에서 상영하는 <목격자의 밤> 등, 사회상을 보여주는 작품에 많이 출연하셨죠. 어떻게 보면 맡은 역할에 일관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역할들은 제가 선택한 거라기보단 감독님들이 제게 맡겨주신 거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배우로서 작품 앞에서 고려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땐 아무래도 '재미있냐'를 많이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부딪칠 수 있는 걸 선택하려 하고, 캐릭터보다 전체적인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곤 해요. <소셜포비아>도, 시나리오를 읽자마자 '지옹 역을 맡아야지'가 아니라 배역과 무관하게 이 작품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참여하게 됐어요. 재미도 있거니와 영화의 메시지에 공감이 갔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 맡은 역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하긴 어려워요. 캐릭터마다 결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보는 분들이 일관성을 느끼셨다면 그건 아마 제가 좋아하는 색이 그 영화들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연급하신 <소셜포비아>는 특히 현장이 '재미있는' 작품이었을 것 같아요.

영화에 남자 아홉 명이 등장하는데, 내용상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고 대면은 처음이라는 점이 현장을 만드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서로 아주 친밀한 분위기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어색할 수만도 없어서 항상 어느 정도 긴장감 있는 공기를 만들어 가면서 촬영해야 했던 거죠. 촬영이 진행되면서 배우들과 스태프들 모두 친해져서 거리낄 것 없는 사이가 됐어요.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장르도 알고 싶어요.

정말 다 해 보고 싶어요. 멜로로 치면 격정적인 것, 달콤한 것, 바보처럼 순수하고 맹목적인 것 모두. 아직은 배우 나이로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4, 50대 배우가 됐을 때 제 색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소 재밌다는 영화나 연극은 모두 보려고 해요. 추천도 많이 받고, 밥 먹다가 스치듯 나온 얘기도 기억하고 꼭 찾아봐요. 무대에 서기 위한 훈련이 충분히 되면 연극도 꼭 하고 싶어요. 연극은 장르나 희곡을 떠나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도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번 매거진의 주제가 '수업'이에요.

재학 중 어떤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지 궁금해요.

학교에서 들은 수업 모두 배우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전 <연기실습>에 대한 애착이 특히 강했어요. 우리 학교 각원 각과가 전공자로서 잘해야 하는 일들이 응당 있을 텐데, 연극원 연기과는 연기를 잘하는 게 기본이고 <연기실습>은 그 기본을 만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연기실습> 시간엔 그저 순수하게 연기에 대해서만 고민할 수 있어요. 수업 기말 발표 때 대개 새벽 4~5시까지 밤을 새며 연습을 하는데, 전 무조건 아



연극원 <연극하기> 수업 중 'No Play'를 발표 중인 2009년의 배우 변요한



배우 변요한이 신입사원 한석울 역으로 주목 받은 tvN 드라마 <미생>

침 7시까지 하곤 했어요. 두 시간 자고 다시 학교엘 와야 하더라도, 다른 수업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대중을 만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날 평가하는 친구들 역시 관객이잖아요. 잘할 땐 몰라도 못할 땐 반드시 말이 나오게 돼요. 오히려 한 번 못하면 예전에 잘했던 것도 '운이었나 보다. 그냥 그때 감정이 좋았던 거겠지' 폼하될 수도 있고요. 그 못하는 순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 '1분만 더 연습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짓말하지 않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1학년 때 서충식 선생님께 배운 거예요. 연기할 때 거짓말하지 않기, 진실하게 접근하기를 강조하셨거든요. 일 년 동안 선생님께 배웠어요. 김선애 선생님 수업도 2년간 들었는데, 요즘도 자주 연락을 드리곤 해요. 학교에서 두 선생님께 배운 게 제겐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갓 입학했을 땐 자존심을 세우고 다녔어요.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자존심, 자신감 같은 것이 자만과 한 꺾 차이일 수 있겠구나 깨닫고 경계하게 됐어요. 이젠 나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것, 그리고 내가 느꼈던 어려움을 남이 느낄 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곤 해요.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것이 겁나 연기를 쉬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본인을 정확히 인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듣고 싶어요.**

연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쉬지 않고 작품을 찍었어요. 고대하던 영화제에도 갔고요. 그런데 막상 스크린에 나온 저를 보니까, 이걸 정말 저만 알아보는 건데, '저기서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됐지'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지인들은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분명 그 칭찬이 제게 꿈과 희망이 되기도 했어요. 결국 부족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건 저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꼭 놀아요! 사람들과 놀고 또 소통하면서 나를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단 걸 알았거든요. 그래야 작품에도 집중할 수 있고요. 이젠 많이 하기 보다는 오래 하고 싶어요. 그때 너무 늦게 저 자신에게서 나는 악취를 맡았으니 운이 좋았던 거죠.

**'내가 나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내가 나라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내가 나라서 해야 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 '이 부분은 자신 있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게 어떤 건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젠 쉽사리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잘하는 게 있다면 저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밀천이 드리났을 때 히든카드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웃음) 아직은 그게 뭔지 찾고 있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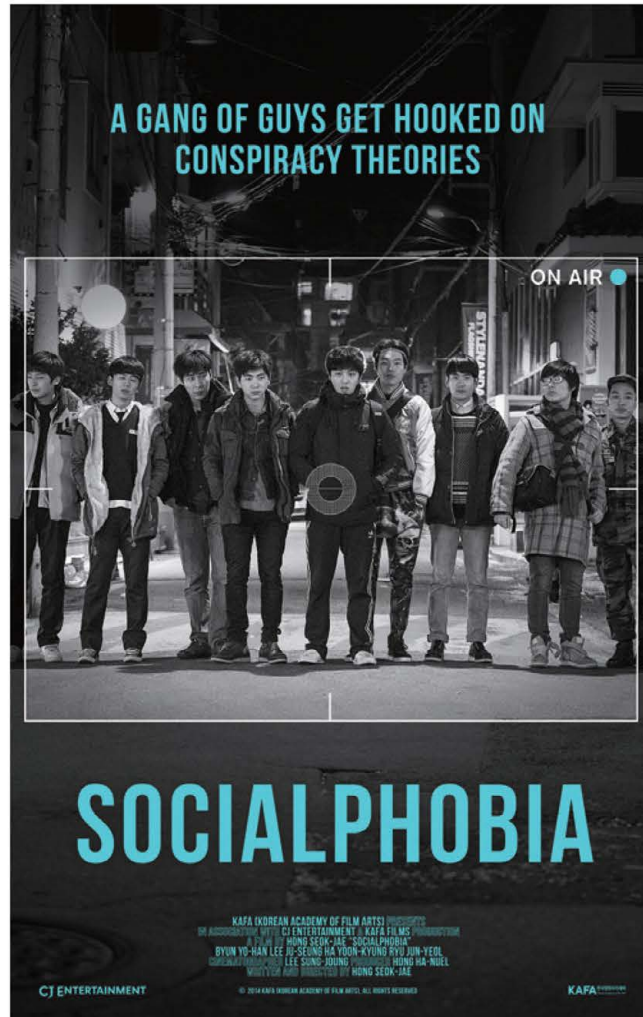
**그렇다면 꼭 극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성. 전 좋은 사람도 항상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평가는 남이 해주는 건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인성을 긍정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절대 어디 가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지 않아요. 그저 제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저를 판단하게끔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연기 잘 해, 나는 좋은 배우야' 단언해 버리면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할 틈도 봉쇄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극복할 것들도 많지만 인성이라고 한 이유는 그게 모든 것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연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당장 차기작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전 항상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걸요. K'

글 김송요 | 사진 사람엔터테인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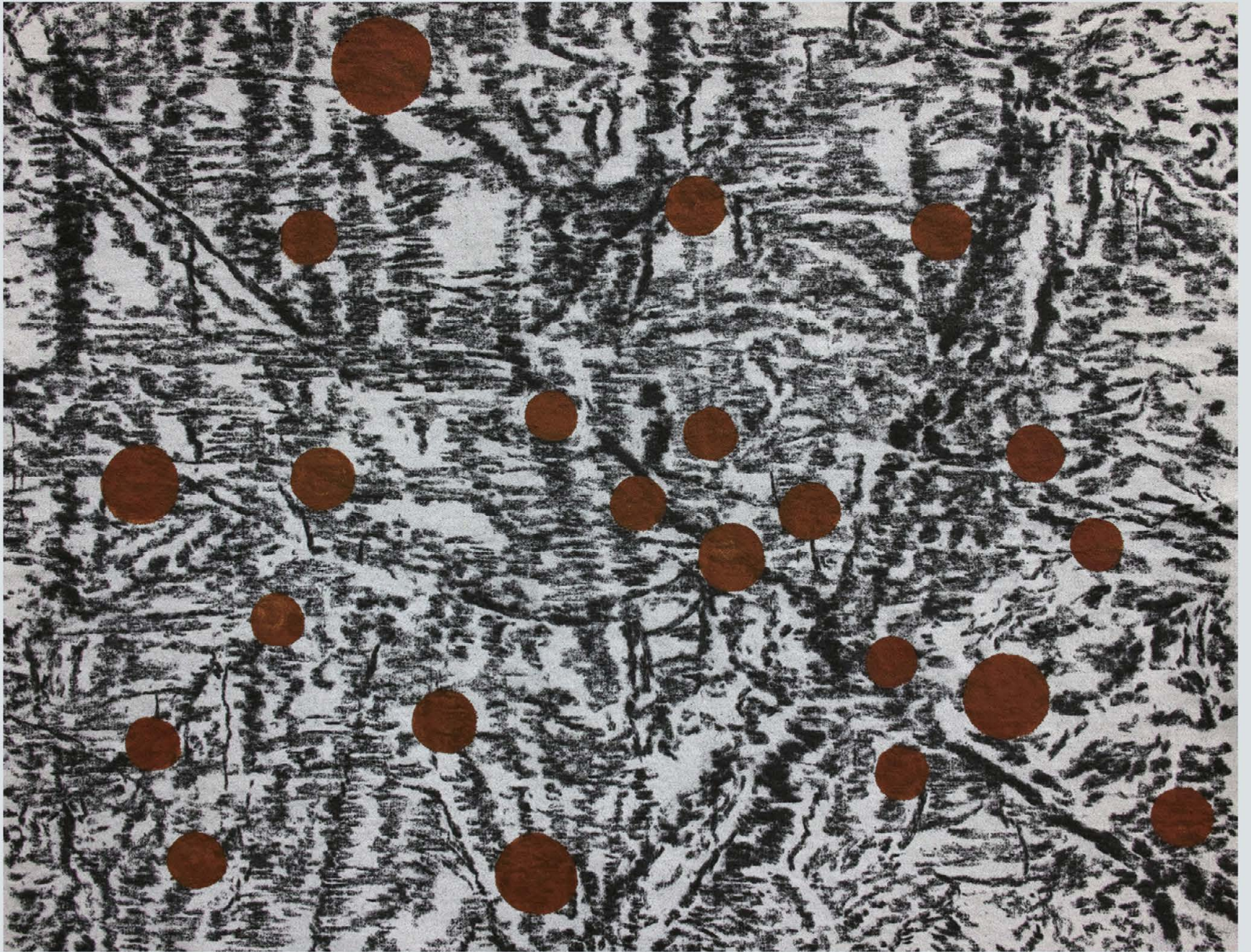


영화 <소셜포비아>는 노량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지웅과 용민이 한 군인의 죽음에 악플을 남긴 '레나'를 직접 만나러 가는 현피원정대에 참여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에서 변요한은 지웅 역을 맡았다.

*Handwritten signature and text:*  
 사랑해요 한.예.경?  
 (The signature is written in black ink on a white background.)



〈Tiergarten 35〉, 〈Tiergarten 36〉, 43×56cm, charcoal and acrylic on canvas, 2014  
빈우혁 |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졸업



극단 그린피그 : 연극 <174517>

전성현 작

# 그래서 우리의 다음 장면엔 뭐가 오는 겁니까



물에 잠긴 도시. 한쪽엔 물을 막기 위한 댐이 있고 다른 쪽은 바다로 열려있다. 마지막 남은 섬 '에덴'에는 지배하는 인간들이, 물이 들어찬 지붕에는 지배당하는 인간들이 산다. 세계는 망(亡)했으나 아직 멸망(滅亡)하지는 않았다.

재난 이후의 인간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연극 <174517> (전성현 작, 윤한솔 연출)이 상정한 재난 사회는 포로수용소의 모습이다. 제목인 '174517'은 프리모 레비<sup>1</sup>가 아우슈비츠에 갇혔을 때 받은 숫자에서 따왔다. 그리고 세계가 물에 잠긴 뒤 태어난 이들에게는 수인번호 대신 '가나', '다라', '마바', 혹은 '철수'와 '영희' 같은 이름이 붙어있다. 이들이 입은 교복, 댐과 철조망, 채찍과 노동, 식권과 고기는 이 세계의 본질을 드러낸다.

"망한 세계가 망하는 이야기"라는 자기소개에 걸맞게 이 연극은 재난 이후 세워진 사회에 다시금 균열이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섬은 조금씩 가라앉고, 지배계급 사이에선 권력 이동의 조짐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곳은 역설적으로 세계의 끝이면서 또 다른 시작이다. 여전히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태초의 에덴에도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것처럼, 혹은 기나긴 홍수 뒤에 노아와 그 가족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극중 인물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실 너머의 새 세상을 꿈꾼다. 베르톨트 오사무<sup>2</sup>는 연극을 통해, 로자 마오<sup>3</sup>는 혁명을 통해, 마바 산티아고<sup>4</sup>는 댐 너머의 바다와 바다에 띄울 방주를 통해, 또 어떤 이들은 권력에 기대거나 구조대가 온다는 환상에 매달려 각자의 구원을 꿈꾼다.

그러나 불행히도 각자가 품은 세상은 결코 다른 이들과 공유되지 못한다. 언어는 불완전하고, 연대는 순간이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만이 남는다. 그리하여 세계의 끝 혹은 시작에 남겨진 이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악인이다. 아니, 선악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열두 명의 인물을 통한 이 재난 시뮬레이션은 필연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된다.

"인간은 무엇인가?"가 이 연극의 절반을 담당하는 축이라면, 나머지 절반의 축은 "연극은 무엇인가?"일 것이다. 극중에서 '베르톨트 오사무'가 만드는 연극은 '174517', 즉 이 연극과 같은 제목을 달고 극중극으로 등장한다. 그는 연극을 통해 눈앞의 현실에 대해 발언하려 한다. 그러나 혁명가인 로자는 비아냥거린다. "직접 찾아 가서 말해, 메타포는 얼어 죽을!"

이 명백한 디스토피아 앞에서 연극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희극적으로 스스로를 향하는 이 조롱에 연극 <174517>은 답을 찾아보려는 듯 전통적인 연극의 요소들을 이리저리 뒤훑들어 보며 관객의 기대에 반항하기 시작한다. 인과와 플롯, 정제된 언어와 화술, 연극적 약속들이 파기된다. 분명 이 이야기의 대단원은 완벽한 멸망이거나 새로운 세상의 탄생이어야 하는데, 클라이맥스로 치달아 가던 어느 순간 플롯이 갑자기 멈춰버리고 다음 장면은 오지 않는 것이다. 무대 위 인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앙은 지속되면서도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세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한다. 심지어는 총에 맞아도 물에 뛰어들어도(!) 아무도 죽지 못한다. 마침내 그들은 이 세계의 마침표를 찍는 방법이 저 댐을 터트리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붙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커튼콜도 음악도 그 어떤 마무리도 없이 객석에 곧장 불이 켜지고, "왜 댐을 터트렸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거지?"하는 의혹에 찬 대화들이 스피커를 통해 끊임없이 들려올 뿐이다. 연극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고, 망한 세계도 끝내 멸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사는 현실로 돌아와 보자. 사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엔딩은 없다. 그 점에서 오히려 이 연극은 현실과 더 닮았다. 인과관계로 정리된 플롯이 없다는 것 역시 현실과 비슷하다. 그럼 인물들은? 저 무대 위 인물들의 행동은 단지 극단적 상황에 놓인 인간의 특수한 행동방식일 뿐인 걸까? 오히려 프리모 레비는 "수용소 안의 사회구조를 지탱했던 것은 (특권층이 비특권층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세상사의 일반적인 이치',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이치'였다."고 말했다.<sup>5</sup> 우리는 그 세계와 이 세계,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선을 그을 수 없다. 극중극 '174517'이 극중 현실을 찌르는 은유였던 것처럼, 연극 <174517>은 진짜 현실을 찌르는 은유다.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차례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끝장낼 것인가? 여기서 이 마지막 질문이 힌트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저들이 댐을 무너뜨렸을 때, 오히려 물이 빠져나간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K**

글 김윤영 | 사진 극단 그린피그

- 1 이탈리아의 작가.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나, 풀려난 지 40년 후 돌연 자살했다.
- 2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와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3 사회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와 중국의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마오쩌둥을 연상시킨다.
- 4 '산티아고'는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다.
- 5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돌베개, 이현경 옮김, 63쪽, 2007.

## 영상원 영화과 제17회 졸업영화제 영상원 방송영상과 제11회 졸업상영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졸업상영회는 졸업 작품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다. 특히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보내며 줄 서서 입장해야 했던 영화과 졸업영화제는 BIFF 때의 기억을 다시 상기시킬 만큼 상황을 이루었다. 방송영상과 졸업상영회의 분위기는 조금 상기된 채로 긴장과 즐거움이 공존했다. 오랜만에 함께 만나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복도는 항상 붐볐고, 무대 인사와 코멘트를 하는 감독들에게는 수줍음과 긴장이 묻어났다. 상영된 모든 작품,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에 누구보다 깊었을 고민이 느껴져 관객들은 기분 좋은 긴장과 기대로 그 자리를 함께했다.

### Rolling, 우리들의 시간

사람들은 유독 청춘에 관대하다. 그리고 냉정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제목처럼 이제는 청춘이라면 아픈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은, 긴 인생 속에서 가장 찬란한 순간임을 쉽사리 부정하기 힘들다. 그래서인지 이번 방송영상과 졸업상영회와 영화과 졸업영화제에서는 Rolling되고 있는 우리의 청춘 이야기로 가득했다.

이희원 연출의 <홀리워킹데이>는 돈을 벌기 위해 호주로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꿈을 안고 간 워킹홀리데이의 현실은 넓은 밭에 늘어선 양파와 별반 다를 없었고, 워킹홀리데이를 연장할 수 있는 세컨드 비자를 위한 몸부림은 간절했다. 영상 속의 청춘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처절했다. 하지만 세컨드 비자를 품에 안은 채 다시 호주로 나갈지도 모르겠다는 이의 말은, 양파조차 말라가는 햇볕 아래보다 한국의 삶이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청춘의 모습에 조금 더 유쾌함을 가미한 작품들도 있다. 김민지 연출의 <절대연필>은 10년째 고시를 준비하는 민준이 절대연필을 얻게 되며 겪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합격을 가져다주는 '절대연필'에는 동화적이고 과장된 소재와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주인공의 '간절함'까지 웃음의 요소가 될 수 없어 씁쓸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작품이었다. 심현섭의 <인턴십>은 과장된 스킬러를 통해 정직원이 되기 위한 인턴들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었다.

25분이라는 러닝 타임이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흥미로운 전개를 보인 홍기원 연출의 <타이레놀>은 배우 변요한의 출연으로 상영 전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많은 팬들의 방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진심을 다해 취업을 준비하던 과거와 달리, 전혀 다른 의미가 내포된 모범답안을 면접관들에게 읊는 주인공을 통해서 현실 사회와 그에 대한 냉소를 비틀어 보여주었다.

# 감이 적당히 익었으니 감 따라 가자

## 창문과 창틀, 소통하는 예술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예술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번 상영회와 영화제에서는 대부분의 상영작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담아내며 사회와 소통하고자 했다.

박지인 연출의 <전학생>은 ‘시선의 폭력’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북한에서 온 수향은 새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생각에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평범한 여학생이다. 아나운서가 꿈인 수향은 북한말을 쓰지 않기 위해 반 친구들에게 할 인사말을 열심히 연습한다. 하지만 그 준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북한에서 온 친구”라는 선생의 말 한마디에 수향이 가진 모든 정체성은 규정되어 버린다. 이는 타인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이 가진 폭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유도한다.

송가진 연출의 <엄마의 독립>은 엄마와 아내로 살던 ‘김복영의 독립’을 딸이 받아들이고 응원해주시까지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작은 셋방에 들어온 엄마와 자신의 피아노를 상의 없이 팔아버린 아빠, 아파트 현관에 놓인 낡은 분홍 구두, 부모님끼리 결정한 이혼까지 진하는 이러한 상황이 혼란스럽다. 하지만 아빠에게 쓴 엄마의 편지를 발견하며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엄마를 이해하게 된다. 이 작품은 엄마와 아내로 살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엄마들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영화의 엔딩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설렌다고 이야기하던 엄마를 떠올렸다.

상영시간 내내 가슴이 먹먹했던 이미지 연출의 <박스>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한 아버지의 사랑을 택배와 연관지어 보여주었으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최수진 연출의 <연인들>은 내연녀와 동성애를 소재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김석 연출의 다큐멘터리 <명자나무>는 8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유명자 씨와 강중숙 씨를 중심으로 학습지도조 재능지부의 끝나지 않은 투쟁을 다루고 있었다. 노동자답게,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을 차가운 길 위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2,600일이라는 함부로 가능하기 힘든 시간과 끊임없이 수면 위로 올라와도 무색하게 잊혀지는 노동자의 권리문제가 보는 내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결국 우리 또한 누군가의 고용인으로,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찬 바닥으로 내몰린 권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자 했다.

이외에도 영상이 아름다웠던 김지선 연출의 <모르는 숲>과 잃어버린 여성성을 수줍고 섬세하게 표현한 심민희 연출의 <해수탕 여인>, 상영 내내 큰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B급 감성 코미디 <파티잔> 등 여러 밤을 고민하고 밤새웠던 작품들이 상영되었다. 감독들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졸업의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엿보였지만 그 누구에게도 후회는 느껴지지 않았다.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감이 적당히 익었으니 감 따러 가라”며 업서에 잘 익은 감 하나를 그려주신 선생님이 계셨다. 계획대로 될 수도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 삶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감은 적당히 익었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제 감 따러 갈 시간이다. **K\*** 글 신혜주



- 1 이희원 감독의 <솔리워킹데이>
- 2 홍기원 감독의 <타이레놀>
- 3 박지인 감독의 <전학생>
- 4 송가진 감독의 <엄마의 독립>
- 5 김석 감독의 <명자나무>

강성은, 김세은 2인전 <자주 보던 숲>



김세은, <Park-Blueprinted>, water mixed oil on canvas, 117.5×162cm, 2013

# ‘무엇’ 같은 자연



강성은, <자주 보던 산>, pencil on paper, 79×109cm, 2015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탐해왔다. 어떻게 하면 구름처럼 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처럼 흐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위처럼 굳건할 수 있을까. 예술의 발생이 자연을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나 자연을 아예 주제로 삼았던 풍경화는 모방의 역사와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아이러니한 말 한 마디가 들려온다. 정작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지자 “꼭 그림 같다”며 예술에 빗대어 감탄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을 두고서 우리는 예술이 자연을 끝내 정복했다고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감상적 한계를 인식해야 하겠는가. 어쨌거나 이 충돌이 시사하는 바는, 예술가가 자연을 탐하였던 노력과 마찬가지로 자연에게서 인간이 끌어올 수 있는 건 궁극적으로 예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사진의 발명과 추상에 대한 인식을 거쳐 이제 자연에 대한 인간의 목표는 명확하게 달라졌다. “어떻게 자연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예술일 수 있을까”가 목표다.

갤러리 175에서 2월 6일부터 2월 16일까지 열렸던 2인전(展)〈자주 보던 숲〉은 이렇듯 자연이기를 포기한, 동시에 예술이기를 욕망하는 ‘자연’을 펼쳐놓는다. 〈자주 보던 숲〉이라지만 우리가 자연스레 상상하던 숲길과는 거리가 먼, 두 명의 작가가 상상하는 풍경이다. 안국동 지하에 조용히 자리 잡은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자연은 계속 상상하고 바라보아야 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시공간의 자연을,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려내고 있는 두 작가의 작업을 굳이 “꼭 자연 같다”거나 “꼭 그림 같다”고만 여길 이유도 없다.

먼저 강성은은 오직 연필로만 그린 정경을 보여준다. 얇은 선이 뼈кок하게 쌓여 이루어진 면들은 그대로 밤풍경이 되어 구체적인 구분이 없는 어둡한 자연을 연출한다. 버스나 기차를 타고 지나며 바라봤다는 밤풍경을 소재로 한 작업이다. 기내에서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창가로 던지시 지나가는 풍경들. 빠른 주행속도로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리에는 종종 뜬금 없는 풍경들이 합산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목격되는 건 산뿔들이들이다.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는 일련의 이미지 모두에 ‘자주 봤다’는 제목을 붙일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일 게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설수록 크지 않은 이 그림들은 몇 가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하나는 재료적 차원에서 왜 굳이 연필을 사용한 선적묘사냐는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과연 이러한 풍경이 실제 차 속에서 바라본 이미지와 동일하냐는 물음이다. 단지 밤중의 바깥 풍경과 분위기를 묘사할 목적이었다면 창가에서 바라보는 정확한 시점처리와 작가가 이전에 전공하였던 동양화의 기법이 보다 효율적이었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통해서 우리는 작가의 의도가 바깥에 있는 자연을 묘사하려는 데에 있지 않고, 그 반대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바깥풍경이 지나가는 것은 그대로 흘러보내면서, 어두컴컴한 차 안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자신의 내면성과 시간에 대한 집중이 작가의 실제 관심사라는 점이 부각된다. 하나하나 일일이 긋고 있는 선이나 정확하지 않은 시점이 바로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장치들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의 자연은, 자연스레 흘러가고 있던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어쩌다 바라본 풍경’에 다름없다.

한편 김세은의 자연은 판이하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자연을 활용하는 태도부터가 그렇다. 무심코 바라보았던 풍경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였던 강성은과는 달리, 그는 적극적으로 자연이라는 소재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주제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자세를 견지한다. 항상 상상해왔던 자연을 계속 현실에서 찾음으로써 담아낸 풍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자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이전에 작가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환상’이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본 풍경이라고 하기에 다소 기이하고 초현실적으로 표현된 화법도, ‘무제’라고 붙은 작품제목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태만 표현한 강성은의 작품제목이 ‘자주 보던 산’이었던 것도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풍경,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냥 자연 같지도, 그림 같지도 않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대체 왜 자연이 환상이자 예술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느냐는 데에 대한 대답이며, 거칠지만 80년대 중후반 출생의 또래 작가가 보여주는 ‘자연풍경’에 대한 관점인 것이다. 유년시절부터 아파트촌에서 살게 된 첫 세대가 보여주는 자연(체험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겪은) 말이다. 강성은이 지금 ‘환상을 현실에서 발견하는 작업’ 이전에 진행했던 ‘그림 그리기’ 프로젝트가 ‘일단 현실을 계속 그려보는 것’이었다는 점은 자연에 대한 양가적인 시대정신이(익히 배웠으나 본 적은 없던, 본 적은 많으나 자연이라 겪은 적은 없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님을 일러준다.

무심코 바라본 풍경을 통해 자신에게 집중하거나, 일부러 바라본 풍경을 찾아 자신을 표현하기. 상이한 두 방식이지만 젊은 작가로서 피해갈 수 없는 고민 선상임은 분명해 보인다. 풍경이 ‘발명’된 이후로 자아가 중요해진 건 알겠지만, 어느 때보다 주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중적인 고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예술을 모색하기 시작했던 과거를 넘어, 아예 풍경 자체가 달라지고 만 현대의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상적이다. 개인이 어떻게 보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연’이 점점 체험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꼭 무엇 같다”는 자체적인 특성을 넘어선 것이다. 자연을 일방적으로 탐하기보다 그것을 매개로 시대적인 고민으로 나아간 젊은 작가들은 어떤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걸까. **K** 글 이지웅

# 생각보다 많은 무렵과 미래의 기억

아마도 늦은 여름이었던 것 같다. 2차에서 3차 정도 되는 첫 작품의 가편집을 마주하고 나서 멘붕에 빠졌다. 그에 더해 과제와 학교생활, 말할 수 없는 대인관계에 대한 (아마 그 시기의 사람들은 다들 하고 있었을 법한, 그러면서 개인에게겐 제법 심각한) 고민 때문에 잠시 힘들어하고 있었을 무렵이었던 것도 같다. 애니메이션과가 있는 영상원 5층, 사람들이 '구름다리'라고 부르던 야외 통로 난간에서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래미안 아파트 철골을 세어보면서 혼자 우울함을 달래고 있을 때, 동기가 "괜찮아?" 하고 물어주던 기억이 있다.

졸업하기 직전까지 작업했던 네 편의 두서없는 단편들을 모아 <생각보다 많은>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하게 됐다. 인터뷰, 관객과의 대화 등의 시간에서 '작업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언지'란 물음에 항상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서서 집에 가는 길에 그제야 어떤 장면이 기억났다. 그때 친구의 목소리, 어둑어둑한 공사현장... 왜 힘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가 뭐가 힘든지 묻지도 않은 채 당연하다는 듯이 그저 '괜찮아? 힘내'라고 말해주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가끔 만나는 그 친구한테 아직까지 그때의 고마움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도...

첫 작업인 <코피루와>은 2학년 무렵 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숙식하며 작업을 했었는데, 꽤 많은 친구와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생활의 고단함과 처음 겪는 작업이 주는 피로움이 경계 없이 엉켜있던 그때의 우리를 떠올리고 나면, 친구가 사연을 묻지 않아도 내가 왜 힘든지 알고 있던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와 동기들은 처음 겪는 작업의 무게와 일상에 대한 책임에 다들 숨이 찼었던 것 같다. 그 무렵의 치열함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랜 입시를 거치면서 겪었던 위장된 열정과 는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대학에 와서 복잡한 툴들과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있는데, 그제야 뒤늦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했던 걸까? 그 이야기를 정말로 할 수는 있을까? 동경하던 애니메이션들처럼 아름답게 그럴 능력이 내게 정말 있는 걸까? 내가 정말로 첫 작업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다른 무언가'는 작업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 무렵 처음으로 익숙해졌던 것 같다. 작업이 주는 고민, 그러다 보면 생기는 외로움, 그리고 두려움. 처음 느껴보는 괴로운 감정들과 어떻게든 밥은 먹으면서 작업해야 된다는 생활의 피곤함들을 끊임없이 떠안는 것에.

졸업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도 하루에 몇 끼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하는 것. 개봉관을 다니며 <생각보다 많은>을 보면서 동화나 편집이 틀린 부분을 집에서까지 되뇌며 이불킵 하는 일. 아직까지도 가장 혼한 일상이다.

학교에 다닐 때는 언제나 과제와 수업, 개인 작업의 병행이 항상 숨이 찼다. 졸업하고 나서는 시간이 많을 줄 알았다. 작업 말고 다른 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작업 외적인 부분이 적어지며 더 많은 작업이 기다리고 있거나 일상 속 새로운 골칫거리들이 나타났다. (예로 들자면,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돈을 벌어야지.) 작업에는 항상 시간 제한이 있었고, 기술과 능력의 한계도 당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한 지원**

애니메이션 감독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졸업)



- 1 <생각보다 맑은 - 코피루왁>, 2014
- 2 <생각보다 맑은 - 학교가는 길>, 2014
- 3 한지원 감독의 대표작들을 한데 모은 애니메이션 <생각보다 맑은>은 네 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럭키미>, <사랑한다 말해>, <코피루왁>, <학교가는 길>의 순서로 상영된다.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해야 하는 시간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작업과 생활은 항상 치밀하게 엉켜있었고, 작업에서의 한계는 항상 존재하는 숙제였다. 그래도 학교에서 첫 작업을 하며 경험했던 그 이상한 '숙식 작업' 생활이 준 수확이 있다. 다른 일을 하다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작업' 이어야 한다는 마음이다. 과실에서 크로키 과제를 하고, 친구들끼리 술을 잠깐 마시러 나가더라도, 항상 컴퓨터와 태블릿이 놓여있는 '킴실'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작업이 곧 생활'이라는 것. 일상의 찌질함과 속세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없고, 갑자기 능력자가 되어서 천재적인 연출을 생각해 낼 수도, 한 달 치 동화분량을 하루 만에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제 계획한 오늘의 분량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한

편을 마감 짓기 위해서는 괴롭게도 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개봉을 하기엔 조금 무책임한 애니메이션들을 돈을 내고 보러 와주신 고마운 관객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얻은 성과가 있다. 애니메이션은 정말로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것이다. 작업 한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만들고 싶은, 한예종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것보다 훨씬 더 전에 '아, 이런 애니메이션을 언젠간 만들고야 말 거야!' 생각했던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정말로,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리란 것을 알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다고 처음 느끼게 만든 <원령공주>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원령공주>)를 처음 보았을 때와 비슷한 포레인) 아이에게도 이해되는 작품을 만들려면,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는 것이다.

아직은 덜 성숙한 고민과 모두의 것일 수 없는 해결 과정을 풀어낸 작업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부끄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느꼈다. 아직은 더 오래 해봐야 한다고, 모두가 이해하는 삶의 고민, 당장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면 이해되는 수많은 순간들, 이번 작업에서는 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한계가 그 다다다음 작업쯤에 와서야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다든가, 그런 개인적인 고민과 작업적인 성장이 곧 당장 하고 있는 작업의 결과에 반영된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길러가며 작업을 배우는 동안 일상의 욕망과 사건들은 작업의 괴로움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다. <생각보다 맑은>의 네 편의 단편들을 이루고 있는 입시나 무책임한 개주인으로서 기억나는 순간들, 남자친구에 대한 투정. 그러한 기억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기쁜 추억들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싫어도 겪어야 했던 사건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일부가 되어 주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작업은 역시 생활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은 아직 부족한 사회 경험에서 오는 실수를 하고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정말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는 사실을 체감하면서도 앞으로 하게 될,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작업들에 대한 가능성에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 가야 할 길이 먼 것을 느끼며 앞으로의 고생에 미리 힘들어 하는 일, 아직은 할 수 있는 것도 알아가야 할 것도 많다는 기대감, 정말로 좋아하는 시리즈물이 아직 한참 더 남았을 때와 같은 흥분 등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에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처음 작업을 할 때 느꼈던 두려움을 지금도 느끼고 있다. 여전히 괴롭지만, 많이 편해졌다.

학교에서 작업하면서 운 좋게 개봉하게 된 네 편의 단편을 만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점을 알게 되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에 괴롭지 않으려는 노력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작업을 하는 한 한계는 계속 주어질 테니까. 하지만 그 한계라는 게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았다. 생각보다 맑다고나 할까. **K**

# ‘Art Law’ 세계를 어떻게 보면

예술은 본래 법과 친한 영역은 아니었다. 예술의 본질적 관심이 아름다움( beauty) 혹은 숭고함( sublime)을 추구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간섭할 여지가 적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로스쿨에서는 < Art Law > 과목을 편성하고 여러 쟁점에서 도출되어지는 이론들을 정립하여 음악, 미술, 전통표현물 또는 영상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강의를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음악의 표절, 옥션( Auction)과 감정( Authentication and Appraisal)을 포함한 미술품 거래, 문화재의 반환, 예술가 및 예술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많은 분야가 망라되어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현대국가에서 예술이 가지는 중요성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적 영역에서 예술과 관련된 이해관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과 법이 관련을 맺게 된 이유, 달리 말하면, 왜 예술 영역에서 법이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술이 사적 자산( private property), 지적 자산( intellectual property), 문화적 자산( cultural property)이라는 요소를 지니게 되면서부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중세 시대와 달리 근대 이후의 예술은 재산적 가치를 지닌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었고 개인 자산으로 점차 그 관념이 변화되어 왔다. 그에 따라 공적 자산에는 부과되지 않는 사적 자산으로 세금, 관세 등과 결부되어 예술과 관련된 분쟁이 시작되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브랑쿠지( Constantin Brancusi)의 조각품에 공산품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하여 쟁점이 되면서 ‘ 예술이 무엇인가’에 관해 언급된 것이 Art Law와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 취급되고 있다.

둘째로, 예술이 가지는 창작성에 기인하여 예술은 예술가가 창작한 지적인 자산으로 이해되었고, 이를 저작권으로 인정하면서 예술과 법은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다. 저작권은 19세기 중반 이후 유럽에서부터 재산적 권리를 가지는 저작재산권과 예술가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 등으로 세분화되어 발전되어 오다가 20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디지털 문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예술가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를 공고히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사진기의 발명이 미술 분야에서 끼친 폭발성과 비견될 만큼 디지털의 무한 복제가 예술 분야에 영향을 준 거대한 사건이 되었다.



이동기  
법학자, 국민대 법학과 교수

# 모습일까

셋째로, 예술이 그 사회와 국가, 민족이 지닌 문화적 자산이라는 인식은 예술과 법률이 가깝게 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류의 자각은 각 사회와 문화가 지닌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자체로 인류 문화유산으로 보호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예술이 지닌 문화적 자산이라는 측면은 국가가 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지원(AID to the ARTS)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왜 국가는 예술가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에 관심을 두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술가는 잠재적 문화 자산의 창조자이며 이는 예술가가 만들어 내는 작품이 단순히 그 예술가만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소유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지닌 문화적 역량을 표현하고 이러한 표현이 그 사회와 국가에 환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고 그 후 개정을 통하여 ‘금지행위’라는 문화예술계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를 규정하였다. 금지행위제도는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에서도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를 ‘예술인’으로 정하는 규정을 두어 예술인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Cultural Property)을 창조하고 국가를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편 문화적 자산(Cultural Property)으로서의 예술은 1970년 유네스코(UNESCO)협약, 1995년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등 문화재 반환 및 불법반출 문화재 회수와 관련된 국제협약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클림트(Gustav Klimt)의 「아델 블로우 바우어 부인의 초상」 작품이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벨베데레 궁전에서 미국의 한 갤러리로 옮겨지게 된 소송은 나치 시대 문화재의 수복과 관련된 금세기 최고의 예술관련 소송이다. 우리나라의 Art Law 영역에서도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일본, 중국과 연관되어 있고 언제든 주요 현안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필자는 2008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과 법률> 과목을 강의하면서 다양한 관심을 지닌 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저작권에 관심이 있는 학우가 있는가 하면, 예술인의 노동자 권리 혹은 복지 문제, 그리고 문화행정 등에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등 학생들의 관심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었다. 아직 예술과 관련된 법을 강의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에서 문제되는 예술과 관련된 여러 쟁점들을 법적인 시각에서 선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은 뜻 깊은 일이었다. 올해는 필자가 연구년을 맞아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멀리 보이는 UC 버클리 대학교 캠퍼스 로스쿨에서 Art Law 강의를 통해 이곳 교수들과 여러 나라의 방문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법」 관련 금지행위 부분이나 저작권에서 저작권격권 관련 논쟁은 여기 Art Law 강의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다. 또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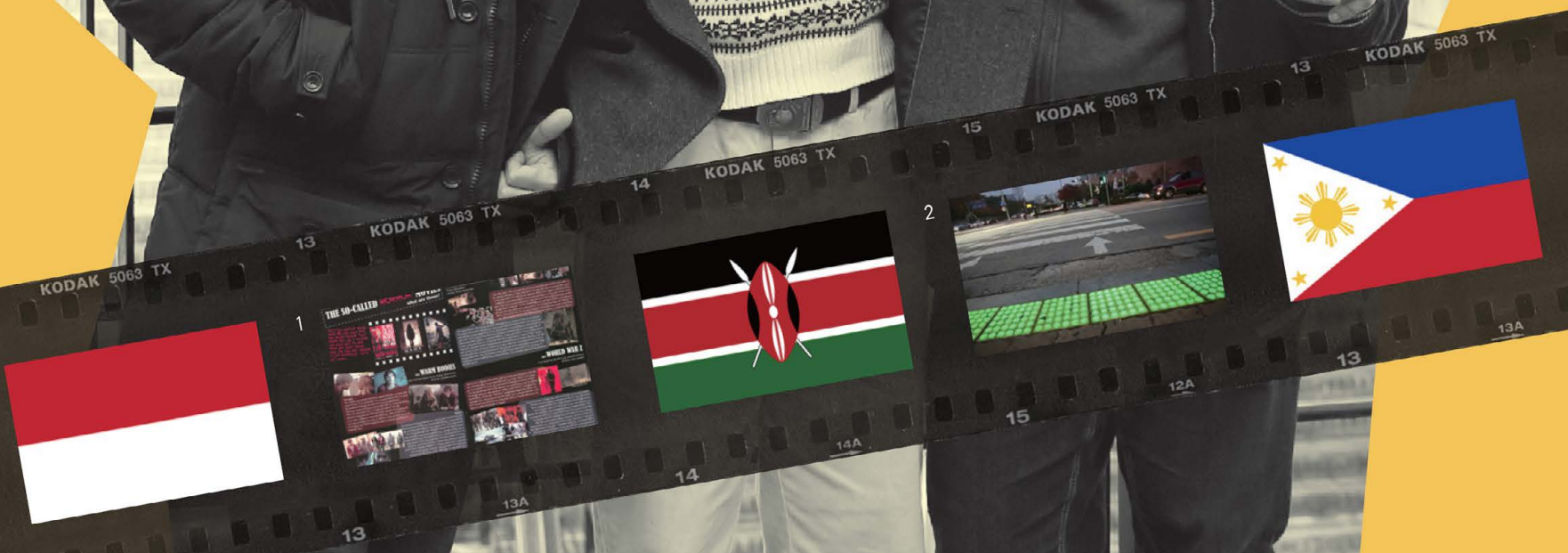
제법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UNESCO 산하 문화재 쟁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민감한 사안들을 조정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Art Law의 미래는 무엇을 다루게 될까? 그것은 아마도 지금의 한예종의 학생들이 현업에서 종사하게 될 때쯤 부딪치게 될 민감한 문제들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관여를 통한 복지가 화두이지만, 지금부터 5년 또는 10년쯤 후에도 국가가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인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할까, 또는 여전히 국가가 예술인 복지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도 창작성과 고도의 디지털이 결부된 유통 플랫폼 자체에서 예술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화두로 삼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접하게 될 Art Law 세상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서 예술학도들이 법과 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보기를 기대한다. **K**



1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청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4  
2 예술인복지 설명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5

# 우리, 같이, 영상원에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아시아우수예술인재(AMA) 장학생 제도를 운영한다.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에게 재학 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예술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18명의 AMA 장학생이 입학했다.



# 다녀요

## 니코 스티아완

## 조슈아 제레미야

### 영상원 AMA 신입생 인터뷰

2015학년도 입학식 아침, 세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니코 세티완 수실로(Nico Setiwan Susilo, 25세)는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방송영상과에 입학했다. 원래 기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는 방송, 영상 자료를 교육에 활용하는 데 관심이 많다. “인도네시아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부터 영상을 틀어주고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을 만드는 데에도 관심이 생겼다.

조슈아 웨라(Joshua Wera, 24세)는 케냐에서 일러스트와 그래픽을 다루는 어시스턴트로 일하던 중 영화과에 지원했다. “케냐에서 교수님이 한예종을 알려주었어요. 원래 영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영상원 커리큘럼을 보고 이곳이 저와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슈아는 한예종에 처음으로 입학한 케냐 인이다. “한국과 한예종에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케냐에 가면 이곳에 대해 다시 알고 싶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예기획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다 올해 영화과에 입학한 필리핀 출신의 제레미야 마곤씨아(Jeremiah Magoncia, 29세)는 한국에 온 지 4년째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서울대에선 언론정보학을 공부했다. AMA 장학생으로 연극원 연극학과 전문사 과정에 다니던 친구를 따라 학교 연극 공연을 보고 처음 한예종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영화과에서 배우며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요. 정식으로 영상에 대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기본적인 편집이라든지 특수효과를 비롯해 시네마토그래피(cinematography)를 한예종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들이 겪은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언어였다. 니코는 특히 문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어의 문법은 매우 쉽고 시제도 간단합니다. (한국어는 시제가 복잡해서) 힘들었는데, 1~2년 정도 더 공부해야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조슈아는 관용표현을 익히는 데 애를 먹었다. “‘밥 먹었느냐’고 묻는 인사가 신기합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안부를 묻는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는 기숙사인 천장관에서 룸메이트를 한국인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제레미야도 비슷한 일을 자주 겪었다. “저도 처음엔 ‘또 보자!’라는 인사를 들으면 ‘그럼 언제 볼까?’라고 바로 되물었어요. 지금은 그 말이 의례적인 표현이란 걸 알고 있지만요.”

조슈아는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드라마도 좋아한다. 특히 배우 이병헌을 좋아해서 드라마 <아이리

스>와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봤다고 했다. 제레미야는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밟을 때 케이팝(K-POP) 팬덤의 행동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가 본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비해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활발한 곳이라고 했다. “한국엔 케이팝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산업이 존재합니다. 한국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은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는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를 좋아하고, 최근에는 영화 <국제시장>을 봤다. “국제시장을 보면서 관심 가는 몇몇 쇼트(shot)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신기하게 보았습니다. 아직 영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영화과를 다니는 동안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단어들을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큐멘터리를 배우고 싶었던 니코는 ‘한예종에 오면 다큐멘터리를 공부할 수 있다’는 선배 AMA 장학생의 말을 듣고 방송영상과에 원서를 냈다. 일 년간 공부할 곳을 찾다가 내린 결정이었다. “다큐멘터리는 제가 배우던 매스미디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예종이 많은 경험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비디오 영상과 자료를 만들어 인도네시아에 돌아가 교육용으로 쓰고 싶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문제를 담은 영상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이 사회문제를 읽어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교육법을 구상하고 있다.

세 명 모두 올해, 공통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먼저 조슈아가 입을 열었다. “학업계획을 짜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영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니코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어요.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자신감도 채워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정말 좋습니다.” 제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알고 싶습니다. 예술계 친구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기대가 큼니다. 마지막으로, 졸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웃음).” K

글 선나리 | 사진 윤대진

- 1 니코가 참여한 <Supernatural - Gloria Two Glow Magazine>의 영화소개 페이지
- 2 조슈아의 <Life & Times in Korea> 중 영상의 한 장면
- 3 제레미야가 <Idol Reality TV> 작업과 함께 촬영한 사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AMA 신입생 인터뷰 및 입학식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



3



2



4



1

## 2015학년도 입학식 / 2014학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2015학년도 입학식이 2월 26일 석관동 캠퍼스 예술극장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행복, 多幸'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올해는 예술사 550명, 예술전문사 335명, AMA장학생 18명 등 총 903명이 입학했다. 김봉렬 총장은 "예술은 자기 확신이 생길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한편 2월 13일 열린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예술사 339명, 예술전문사 162명 등 총 501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

## 무용원장에 김선희 교수 등 주요 보직교수 임명

본교는 3월 1일자로 보직교수 인사를 아래와 같이 단행했다.

- 무용원장 김선희 교수
- 음악원 성악과장 송광선 교수
- 음악원 기악과장 김대진 교수
- 음악원 음악학과장 박상민 교수
- 영상원 방송영상과장 전규찬 교수
-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장 장윤희 교수
- 영상원 애니메이션과장 박세형 교수
- 미술원 디자인과장 김경균 조교수
- 미술원 미술이론과 진휘연 부교수
- 한국예술연구소장 양정무 교수
- 음악극창작협동과정 주임교수 남궁호 교수

3

## 김남윤, 김윤철, 허영일 교수 정년퇴임

3월 6일 서초동 캠퍼스 크누아홀에서 김남윤 교수와 김윤철 교수, 허영일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거행되었다. 김남윤 교수는 음악원 기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음악원장과 한국예술영재교육원장을 맡아 학교 발전 및 예술인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윤철 교수는 연극원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연극평론가협회장, 국립예술자료원장, 국립극단 예술감독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교학처장, 연극원장을 역임하며 예술 발전 및 연극원 역량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허영일 교수는 무용원 이론과 교수로서 이론과의 기반을 다지고 무용원장을 역임했으며, 세계민족무용연구소를 설립하여 무용원의 외연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4

## 청년예술가 일자리 조사연구 심포지엄 성료

우리 학교 청년예술가 일자리 지원센터는 예술전공 졸업생의 실태와 청년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을 주제로 2월 25일 종로구 아름지기 사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예술을 전공한 학생부터 문화 예술기관 관계자, 예술가와 교육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참여한 가운데 연구원들의 발표와 청중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6



8



남화연

정유미

5



7



김한결, 박지수  
이상민, 빈혜빈, 신윤서

5

## 영상원 출신 나영길 감독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영상원 영화과 출신 나영길 감독이 졸업작품 <호산나>로 제6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 경쟁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호산나>는 아프거나 다친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들을 되살리는 소년의 이야기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http://kmc.karts.ac.kr>) 로그인 시 성인에 한해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6

## K-Arts 무용단, 런던 트리니티 라반 콘서바토리 초청 공연

무용원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K-Arts 무용단이 1월 28일 런던 트리니티 라반 콘서바토리(Trinity Laban Conservatoire)와 교류협정 기념 초청 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미숙 교수의 안무작 <Homage (Bow)>와 <Reflection>, 신창호 교수의 안무작 <No Comment> 3개 작품을 선보였으며, 현지 언론에서는 예술적 체취와 전문이 느껴지는 공연이었다고 평했다.

7

## 무용원·한국예술영재교육원 국제무용콩쿠르 입상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12회 베를린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무용원 실기와 김한결이 클래식 솔로 대학부에서 3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무용분야 발레영재 이상민, 빈혜빈은 클래식 솔로 고등부 2위, 3위, 신윤서는 클래식 솔로 중등부 3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박지수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 열린 제43회 스위스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에서 2위 수상이라는 쾌거를 올렸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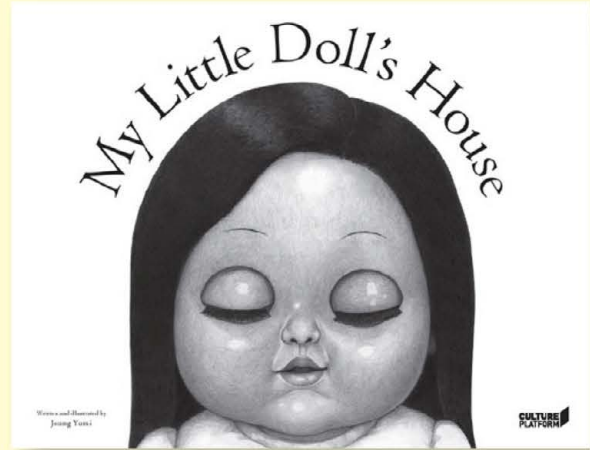
## 미술원 출신 남화연·정유미 작가 세계무대에서 부각

미술원출신 남화연 작가가 5월 9일 개막하는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남화연 작가는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출신으로 2009년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했다. 정유미 작가 또한 조형예술과 예술전문사 출신으로 그림책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볼로냐 라가치상을 2년 연속 수상해 주목받았다. 이번 2015년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부문 우수상 수상작은 <나의 작은 인형상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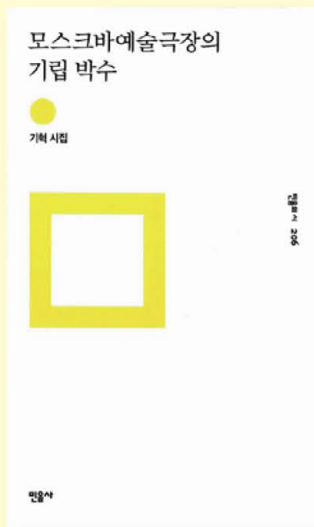
# K-Arts Dig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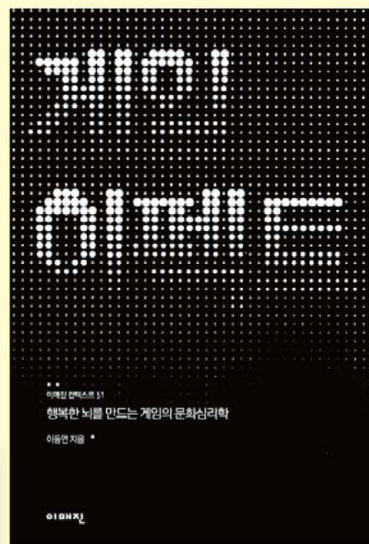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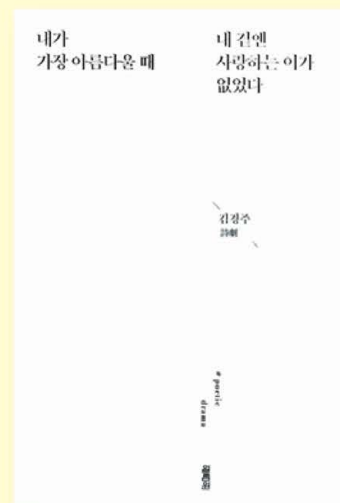
2



4



5



6

## 1 — 앨범

### Canto Antigo

신지아, 이성우, 올리버 파르타쉬 나이니 / Universal

포르투갈어로 '오래된 노래'라는 뜻의 <칸토 안티고> 앨범은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와 클래식 기타 듀오 이성우, 올리버 파르타쉬 나이니가 참여했다. 이성우와 올리버 파르타쉬 나이니가 5년 전부터 기획한 이 앨범에는 남미, 미국, 영국, 동유럽 등 전 세계에 숨겨진 민요 16곡이 담겨 있다.

## 2 — 시집

### 모스크바예술극장의 기립박수

기혁 / 164p / 민음사

제33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 시집이자, 이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언어를 구현하는 시인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혁의 첫 시집이다. 시인은 시적이면서도 극적인 여러 장치와 요소들을 섬세하게 배열하고 견고하게 구성하여 "개성적이고 일관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끝내 스스로의 연극을 부조리극으로 구체화시킨다.

## 3 — 그림책

### 나의 작은 인형 상자

정유미 / 154p / CULTUREPLATFORM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15 볼로냐 라가치상 픽션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나의 작은 인형 상자>는 애니메이션을 재탄생시킨 그림책이다. 작가는 소녀의 내면을 작은 인형 상자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소녀를 닮은 4명의 캐릭터를 통해 자아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낸다.

## 4 — 사회학 도서

### 게임이펙트: 행복한 뇌를 만드는 게임의 문화심리학

이동연 / 256p / 이매진

총 10개 챕터에 걸쳐 게임포비아의 발생 원리를 분석하고 창의적 게임 교육의 사례를 살펴보는 이 책은 게임을 둘러싼 이분법과 그 안에서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부정적 요소를 지적한다. 강제적 게임 선택을 도입한 뒤 논란이 된 게임 규제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게임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을 다른 방식으로 고민한 결과물이다.

## 5 — 장편소설

### 도시의 시간

박솔휘 / 192p /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로 발간된 이번 장편소설에서도 박솔휘 문체의 매력과 사회문제에 대한 예민한 의식 가운데 친구 관계에 있는 네 인물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을 따라 진행되는 서술의 힘, 그 사이사이 드러나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적 사유가 돋보인다. 끝없이 반복되는 도시 위에서 멈춘 듯이 흘러가는 네 청춘의 시간을 특유의 과감하고 독특한 스타일로 담아냈다.

## 6 — 시극

### 내가 가장 아름다울 때 내 곁에 사랑하는 이가 없었다

김경주 / 159p / 열림원

시인 김경주가 총 3막으로 구성된 시극을 발간했다. 시극은 대사가 시의 형태로 쓰인 희곡을 말하는데, 산문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각각의 글에 리듬과 운율이 살아 있는 문학적 장르다. 눈 내리는 밤, 버려진 바닷가의 작은 파출소. 등장인물인 김 씨와 파출소 직원, 사내는 창문에 낀 성에처럼 차갑고 불투명한 공간을 서로의 체온을 빌어 훈훈하게 채워간다.

## Postscript

- 정예은 ♦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떤 징후들이 있다. 평소 그걸 잘 캐치하고 살아야 한다. 이번의 경우에는 냉동불닭발을 주문했던 때부터였던 것 같다.
- 서은호 ♦ 야구는 사람이 열번 중 세번의 성공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유일한 영역이다 - 테드 윌리엄스
- 최생이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박이현 ♦ 취재에 협조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선나리 ♦ 저는 봄이 싫어요.
- 김은수 ♦ 졸업생 김은수 후기: 신입생 OT의 첫경험
- 최윤지 ♦ 고맙습니다
- 변지민 ♦ 생각을 조금 줄여도 사는데 지장없는 것 같다.
- 손송이 ♦ 지우야 사랑해 - 이모가
- 김승요 ♦ 인터뷰 정리 도중 사라진 녹음파일을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애플 서비스센터 상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윤영 ♦ 리뷰는 처음 써봤습니다. 봄이 오네요.
- 신혜주 ♦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 이지웅 ♦ 봄봄봄 봄이 왔어요
- 노효경 ♦ 봄인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 주은영 ♦ 내 생각들은 꼬리가 없지, 이미 다 먹혀버렸거든
- 정명숙 ♦ 기분이 어렵다지요. 그래도 기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 먹혀버린 꼬리라도 붙잡아야겠어요. - 羅原

세계를 품고 차이를 넘어 미래를 열다



예술가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후원 계좌: 국민은행 086-25-0022-525 예금주: 한국예술종합학교발전재단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회랑로 32길 146-37 본부동 4층 M403호 02.746.9017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FOUNDATION

발행일	2015년 3월
발행인	김봉렬
편집인	최준호
자문교수	김홍준 박인석
제작총괄	이학주
기획·편집	정명숙 주은영
취재	김송요 김윤영 박이현 서은호 선나리 손송이 신혜주 이지웅 정예은 최샘이 최윤지
사진	윤대진 김경수(포이스튜디오)
영상	김은수 노효경 변지민
디자인	홍디자인(김형철 임소영)
인쇄	가나커뮤니케이션
발행처	한국예술종합학교 대외협력과

## 한국예술종합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석관동 캠퍼스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37  
서초동 캠퍼스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74  
전화 02.746.9000 팩스 02.746.9444  
이메일 pr@karts.ac.kr 홈페이지 www.karts.ac.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artsPR

Copyright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ll Rights Reserved.



표지 이미지: 한지원 (애니메이션 감독, 영상원 애니메이션과 졸업)

앞. <생각보다 맑은-코피루약>, 2014

뒤. <생각보다 맑은-학교가는 길>, 2014

